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June 2013 vol.99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곽대중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경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

서울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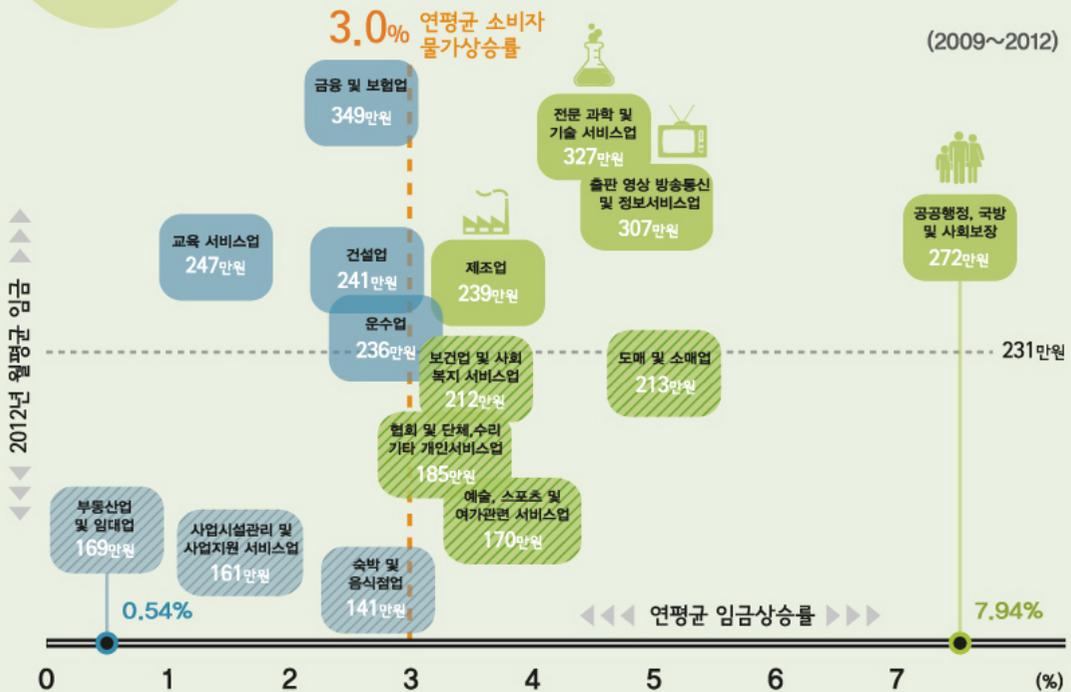
부록

통계표

6

2012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349만원으로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1만원으로 최저

: 부동산 및 임대업을 포함한 7개 산업은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3.0% 보다 하회



주: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적은 5개 산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채광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제외

2012년 산업별 월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임금

자료: 2009, 2012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이달의 이슈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곽대중(산업연구원 연구위원)

9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경(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생생리포트 21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33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39 **요 약**
41 **생 산**
44 **소 비**
46 **고 용**
52 **물 가**
54 **부동산**
60 **금 융**
69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부록 75 **통계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곽대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djgwak@kiet.re.kr

1. 최근 신재생에너지수요 위축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녹색성장 선언을 필두로 각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에 힘입어 급성장을 해오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두 가지 암초를 만나 성장세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그 하나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유럽의 경제위축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귀결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급감이다. 유럽의 경우 높은 전기요금에 기반하여 태양광발전단가가 최근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근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기침체는 태양광과 같은 정부보조금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1위의 태양광기업인 중국의 선택과 위(Suntech Power)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셰일가스 붐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 (현)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환경·에너지산업팀 연구위원
- 녹색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지속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를 중심으로 (2011), 주요 녹색산업의 지역별 발전전략-태양광·연료전지·LED·그린카를 중심으로-(2010), 주요 녹색산업의 지역별 발전전략(2010),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성장전략(2009)

이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그동안 환경과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셰일가스를 새로운 공법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러시아의 글로벌 가스 산업 패권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미국 제조업 재부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한 석유 수요와 함께 셰일가스 개발은 국제 유가를 하락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각국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비록 중단기적으로 위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산업이다. 이는 부존자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는 달리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금융 및 각종 서비스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적 특성이 있어 특히 전자, 화학 및 조선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여 계속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30년대 중반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석탄발전을 추월하여 세계최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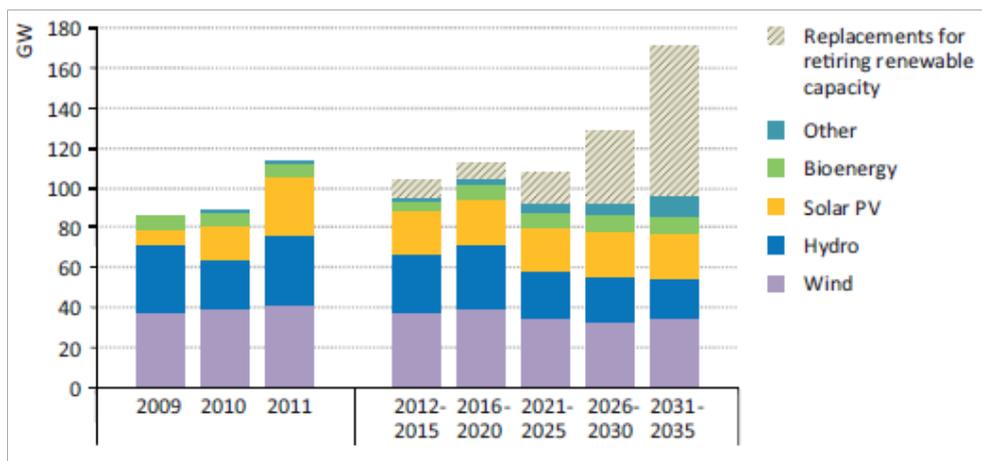
2. 세계 신재생에너지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추월 전망

신재생에너지는 비록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동력이 다소 상실되었으나 수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풍력과 태양광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EA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총발전량 중 거의 1/3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발전량의 절반 수준에 근접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의 발전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2035년이 되면 석탄을 따라잡아 세계 최대 발전원의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발전량 기준)은 2010년 4,206 TWh였으나 향후 연평균 약 4.3%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9,786 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서는 OECD 중에서는 미국과 유럽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주목된다.

또한 바이오매스(발전용) 및 바이오연료 소비는 네 배 정도 증가할 것이며 국제 교역량

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에너지 자원량은 식량생산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 충분하지만, 토지사용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

[그림 1] 신정책 시나리오에 의한 세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전망

3.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장기적 관점 육성 필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즉, 2011년 기준으로 2.75%로서 덴마크의 25.5%에 비교할 수 없이 낮으며 1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독일, 프랑스 및 미국에 비해서도 낮은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일본의 3.7%와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2015년 4.3%, 2020년 6.1% 및 2030년 11.0%의 보급률 달성을 위해 앞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각 에너지원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폐기물의 비중이 막대하여 2011년의 경우 전체의 약 67.5%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다. 그 다음이 수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점유비가 거의 비슷한 1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의 경우 각각 2.7%와 2.4%를 점유하고 있어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표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추이

(단위: 천 TOE)

	2003	2005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2003 ~ 2011)
공급량	4,436.4	4,879.2	6,856.3	7,582.8	6.9
(공급비중,%)	2.1	2.1	2.6	2.8	3.7
태양열	32.9	34.7	29.3	27.4	-2.3
태양광	1.9	3.6	166.2	197.2	78.7
바이오	131.1	181.3	754.6	963.4	28.3
폐기물	3,039.3	3,705.5	4,862.3	5,121.5	6.7
수력	1,225.6	918.5	792.3	965.4	-2.9
풍력	5.2	32.5	175.6	185.5	56.3
지열	0.4	2.6	33.4	47.8	81.8
수소, 연료전지	-	0.5	42.3	63.3	124.1
해양	-	-	0.2	11.2	5500.0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비교적 최근에 확대됨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투자와 생산 및 수출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경우 2007년 약 7,000억 원에 머물렀으나 2009년 2조 9,900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거의 배증한 4조 6,5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생산규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 2,810억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4조 9,370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¹⁾. 또한 수출액의 경우 2007년 7,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3조 900억 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1년에는 6조 9,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련 컨설팅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012년 초에 발표된 것으로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표 2]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업수,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및 투자 추이(2004~11)

	단 위	2004	2005	2010	2011 (추정)	연평균증가율 (2004~2011)
기업수	개	49	59	212	-	27.7
고용인원	명	716	1,317	13,651	17,348	57.7
매출액	십억 원	143	281	8,078	14,937	94.3
수출액	백만 달러	64	148	4,535	8,655	101.6
투자액	십억 원	-	-	3,549	4,552	59.9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2012

4.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지향 필요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 및 수출 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수요위축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셰일가스 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최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글로벌 경기도 회복될 것이고 셰일가스 개발 역시 화석연료 고갈기간을 연기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2030년대 중반에 신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넘어서 최대의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의 경우 급속히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 분야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서비스 영역에서도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이 동원될 필요가 있으며, 비교적 분업구조가 양호한 풍력의 경우 역시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세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국내의 연관 산업과의 연계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R&D 등 지원에 의해 공급기반이 구축되고 의무발전제도(RPS) 등 각종 지원에 의해 수요가 형성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발현하고 성장하는 여타 산업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및 지속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각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은 물론 협소한 국내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출발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ODA 및 EDCF 등 각종 개도국 개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 개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확충과 투자기능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에너지관리공단(2012),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min@si.re.kr

1. 서론 : 건물에너지 수요전망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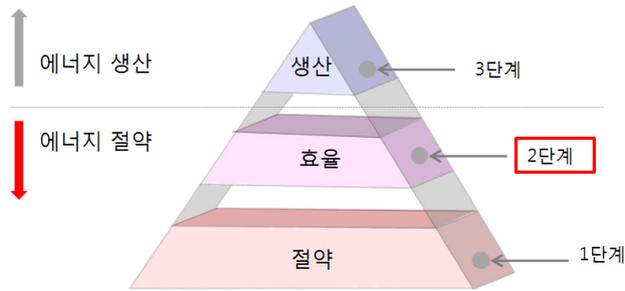
서울시는 에너지 저소비 도시를 향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2007년 “서울친환경에너지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마스터플랜”, “신재생에너지보급 중장기 기본계획(2011~2015)” 등을 발표하였다. 2012년부터 ‘에너지 수요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도시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6개 분야 78개 사업을 구성하여 현재 2.8%에 그치는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 2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저감함으로써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각 사업은 절약-효율-생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1에서와 같이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근간으로 하여, 건물에너지 효율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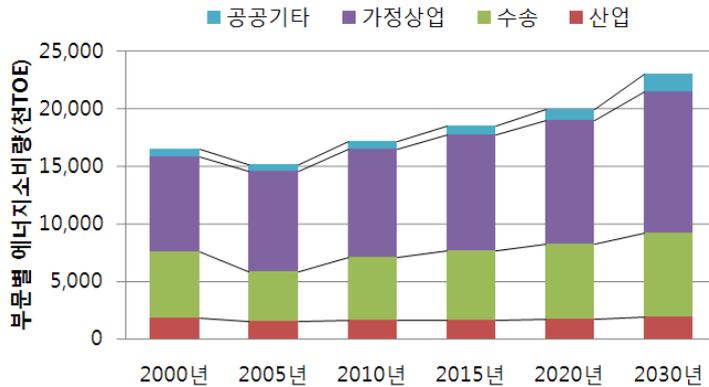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베를린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 Berlin Architektin,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
-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에너지소비량(2013), 햇빛지도 제작(2013), 단독주택 난방에너지 효율개선사업(2012),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추정모델(2012) 외 다수

상이 주된 이슈이다. 실천하고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저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단계를 통하여 저에너지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에너지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고작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1] 저에너지건물 구현방안



[그림 2] 건물에너지(가정상업) 수요전망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하여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과 에너지소비총량제(2010) 등을 실시하여 신축 및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2. 신축 : 정책만 있고 기술은 없다

서울시는 단위 면적당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상향 조정¹⁾하여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의 첨부, 친환경 인증등급 우수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50%이상 벽면률 확보를 의무화하여 단열기준을 강화해 가고 있다.

건물에너지 이론 혹은 에너지요구량 계산에 의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난방에너지의 약 70%를 저감할 수 있으며, 고효율 설비와 가전기기의 사용을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의 저감이 가능하다. 신축은 물론 기존건물 개보수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에너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실제 건물에너지는 줄지를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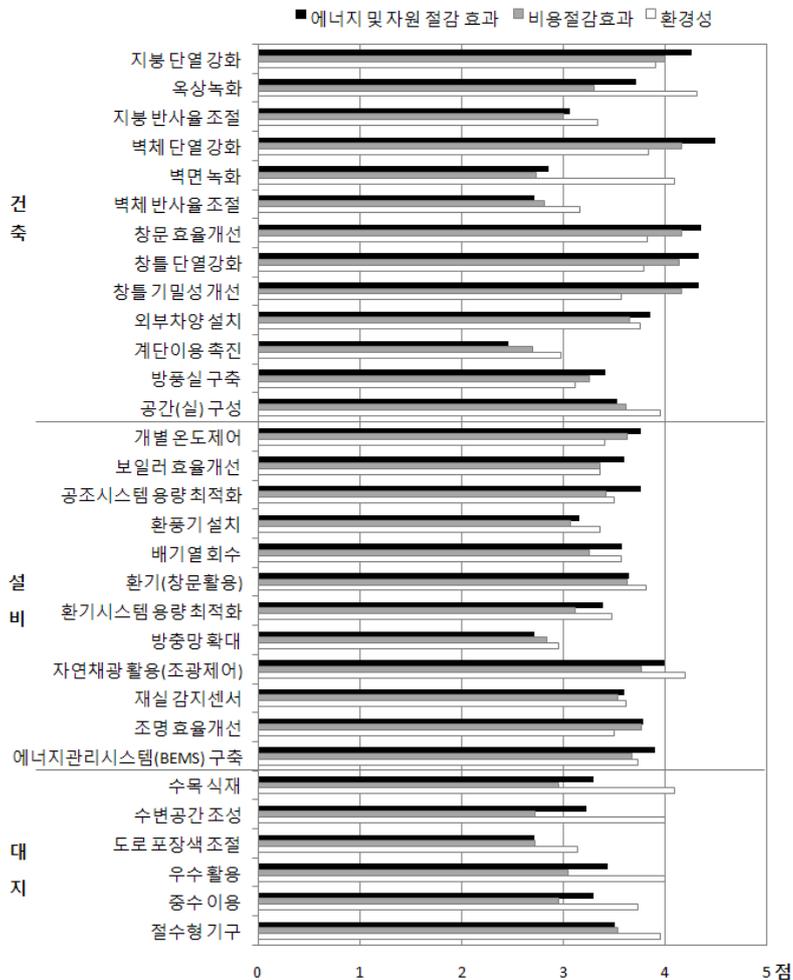
저에너지건물의 한 축을 이루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패시브하우스-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개념으로 매우 낮은 난방수요[스칸디나비아 기후대에서 15kWh/(m²a) 이하]를 갖는 건물을 의미하며,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확장된다. 먼저 에너지절약규정(ENEV)²⁾에 따라 난방열 수요가 70~75%[단독주택: 70kWh/(m²a), 다가구주택: 55kWh/(m²a)]인 저에너지건물이 그 하나이며, 두 번째 개념인 3-리터 하우스(또는 1.5리터 하우스)는 1m²를 가열하는데 드는 기름의 양이 3리터(또는 1.5리터)가 필요한 건물을 말한다. 3리터의 난방유는 약 30kWh/(m²a)의 난방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는 유럽의 기후에 맞는 스탠다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국내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기후, 라이프스타일 등 여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기준에 맞지도, 한국에 적용한 개념도 아니면서 독일의 인증서만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뒷전이다. 그러나 패시브하우스-인스티튜트 인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증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기 때문에 에너지저감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많은 외화만 낭비하는 결론에 이른다.

건물 자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너지저감을

-
- 1) 공동주택 : 200→ 190kWh/(m²a), 일반건물 : 300→ 280kWh/(m²a), 공공건물 : 270→ 250kWh/(m²a)
- 현재 국내에서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및 소비량의 단위는 kWh/m²y, kWh/m²년 또는 kWh/m²year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국제기준 ISO 13790에 의하면 kWh/(m²a)로 표기. a : annual
 - 2) 독일은 2002년 기존의 열보효규정(WSchV)과 난방설비규정(HeizAnlV)을 통합하여 에너지절약규정(EnEV, Energieeinsparverordnung)을 제정, 2~3년 주기로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모든 신축 및 개보수 건물이 에너지소비인증서(Energieausweis)를 제출 의무화. 2009년 제정된 재생에너지법(BEWE)은 모든 건물에서 난방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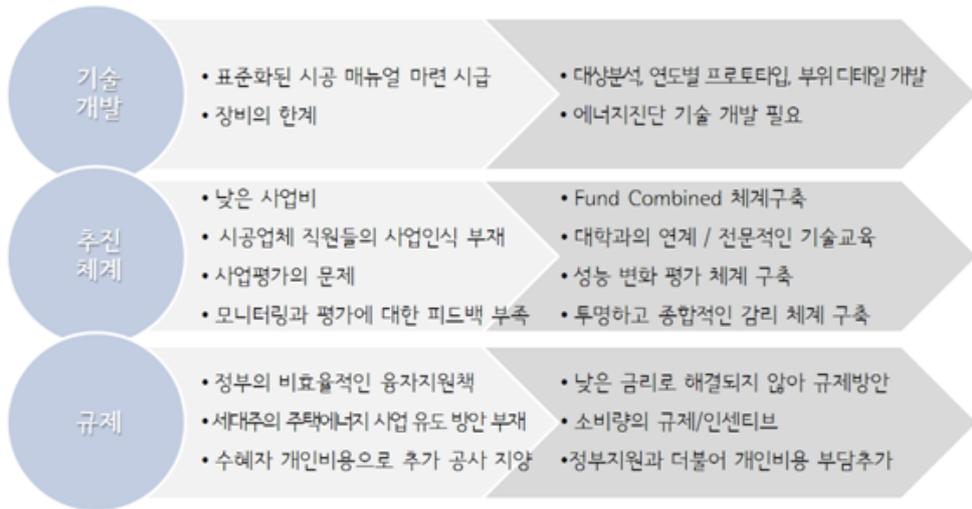
가져오지 못하였다. 국내의 건물에너지 저감 개념에는 패시브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라는 액티브하우스의 개념을 함께 포괄하여 “그린홈”으로 확장시켜 사용하면서, 에너지성능에 대한 중요성을 희석하고 있으며, 정교한 기술은 없다.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이란, 액티브(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배제하고 건물외피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로서 고효율 외피 시스템, 냉난방공조환기시스템, 친환경 건축자재, 건물 에너지설계 및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술과 효과는 그림3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단열강화와 창문·창틀의 기밀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기술이며 외피, 공조, 설비, 에너지제어 등 종합기술이다.



[그림 3] 에너지저감 건축기술과 효과

3. 기존건물 : 전문가 없는 현장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 Building Retrofit Project)을 실시하여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며, 인센티브 지급, 인증 비용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융자금이 적고, 개보수에 따른 혜택도 거의 없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원인을 기술개발 및 추진체계의 문제, 규제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건물소유주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서민층의 지속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태와 임대구조를 고려한 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각 정부기관들 간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Fund Combine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제한된 지원금으로 인해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평가툴에는 열손실 계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너지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건물의 개보수 후에도 열교부위를 통한 열손실은 계속되고 있으며,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기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에 대한 이해와 시공기술의 부족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건물 시공사례에서 열교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나 정밀한 시공을 위한 부분 디테일을 적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의 낙후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단열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임의 재단하여 연결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열부위의 성능저하, 열교발생, 심한 경우에는 표면결로를 발생시켜 건물의 결함으로 이어진다. 단열성능은 저하되고, 지붕단열재 하부에 방습층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습기가 침투되기도 한다. 현장시공에 있어서 정밀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모듈형 외벽단열재 또는 공장생산형 외벽단열 모듈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밀시공 외에도 열손실 예상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면 위의 외벽에만 단열시공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능하다면 기초부위의 단열을 고려해야한다. 시공후 외벽하부의 열교부위로 방치되어 지속적인 열손실과 건물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교부위를 통한 열손실은 건물전체 열손실의 최고 30%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사업모델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규정에 맞추어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약 70~90%의 난방에너지의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개보수에 따른 난방에너지의 절약은 공사시의 적용요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위면적당 11.7~18.6만원/m²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은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유지시 에너지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약 3~5년 사이에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에너지저감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시범모델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4. 저에너지건물 보급을 위한 정책

정부는 에너지절약의 국민 인식제고 향상과 효율적인 건물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실현하여야한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물을 통하여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잡지 않고는 국민 실천을 통한 절약도, 신재생에너지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다년간 쌓아온 건축시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저에너지 건축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에너지저감률(%)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난방, 전기, 기타 등 에너지원별로 구분하여 에너지소요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면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변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책을 계획-규제-지원의 3단계로 구분할 때, 서울시는 균형적인 정책구도를 잡아가고 있다. 설계기준(계획)은 강화하고, 에너지총량을 규제하고,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통한 용가지원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50% 이상 벽면률 확보, 단열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또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여,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목표값)을 강화해 나간다. 의무기준 뿐만 아니라 용적률 완화 등 지원정책을 통하여 저에너지건물을 확산하고자 한다.

현업에 있는 건축가나 건축주가 이러한 정책목표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책적 한계점은 언제나 있고, 의무기준을 피하여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설계방식과 건축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책임을 면피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건축기술이 있는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틈을 노리고 단기간 이득만 챙겨 사라지는 기업이나 단체가 속출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을 활용한 건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한 에너지비용의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과 기술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저에너지건물 보급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실증과 성능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현행 건물에너지 성능 진단과 인증의 신뢰도가 낮고, 사후관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시공에 필요한 현장기술을 전달하기 위하여 에너지저감 건물 설계와 시공에 대한 상세 표준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시공기술의 부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의 개선과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 책임자를 교육하고, 정밀시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책임기관, 전문가, 시공자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건물 개보수를 위한 단열재, 방습층 등의 재료의 개발과 시공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시범모델을 개발하여야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공무원 업무편의성만을 위한 체험관이나 홍보관 건립은 건물에너지 저감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와 같이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 등은 확산가능성이 낮고, 에너지 효율개선효과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설계에서부터 시공방법, 사업시행 후 성능평가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사업을 집중하여 우수한 시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에너지저감 건축기술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녹색성장위원회(2009), 중점녹색기술개발 전략
- 조육희(2010), 저탄소 시대의 친환경건축물 기술/사례, 삼성물산 친환경에너지연구소
- 김민경·임희지(2010) 세계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민경·김성은(2010) 기존 단독주택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요소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3호
- 녹색성장위원회(2011),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방안
- 서울특별시(2011), 신재생에너지보급 중장기 기본계획(2011~2015)
- 김민경·조향문(2012)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추정모델 개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에너지대안포럼(2012), 2030년 에너지 대안
- 에너지토론회(201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현황 및 문제점·대안, 참여정책연구원
- 서울특별시(2012),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 김민경(2012),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Eschenfelder, D., Etzkorn, H.-W.(2005) Altbausanierung mit moderner Haustechnik, Oldenbourg Industrierlag GmbH
- IBÖ(Österreichisches Institut für Baubiologie und -ökologie)(2008) Passivhaus-Bauteilkatalog / Ökologisch bewertete Konstruktionen, Springer Verlag
- Lausten, J.(2008)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in Building Codes,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New Buildings, IEA
-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www.bmwi.de
- 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www.bmu.de

생생리포트

■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I. 서울거리를 가득 채운 '커피전문점'
- II. 자치구별 '커피전문점'은 증가, '일반유흥 주점'은 감소
- III. 글을 마치며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서울거리를 가득 채운 ‘커피전문점¹⁾’

요즘 서울의 거리를 살펴보면 한 골목 당 커피전문점이 적어도 한 가게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커피전문점은 식사 후에 후식을 먹는 장소를 뛰어넘어 이제는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늦은 밤까지나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늦은 시간까지도 활기를 띄고 있는 커피숍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의 2008년 2011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눈에 관찰되듯이 커피전문점의 수가 증가했으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서울의 자치구 중 어떤 곳에 주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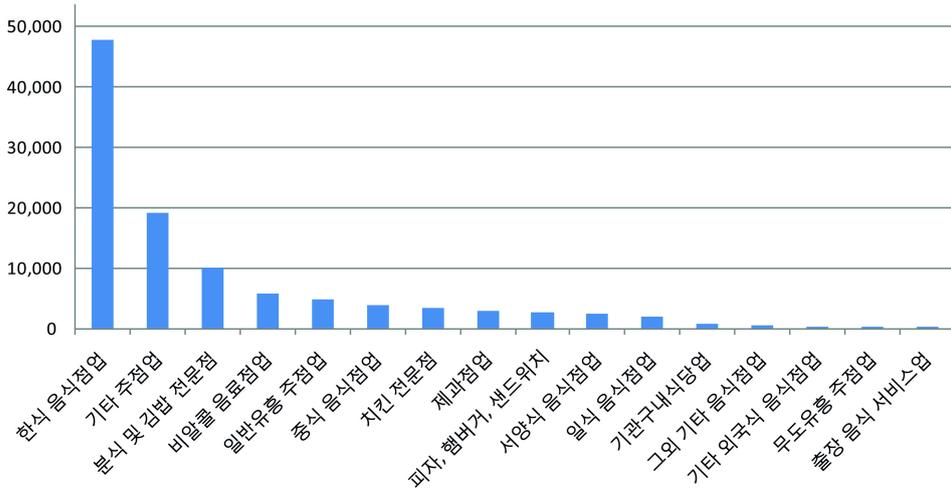
'커피전문점'은 연간 증가율은 1순위, 사업체 수는 4순위

2011년 서울의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자료를 분석하면 [그림1]과 같다. 1순위는 한식 음식점업 47,873개로 전체의 42.6%, 2순위는 기타 주점업 19,113개로 전체의 17.0%, 3순위는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590개로 전체의 8.5%, 4순위 비알콜 음료점 9,399개로 전체의 8.4%, 5순위 일반유희 주점업 4487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순이다. 1순위 한식 음식점업과 3순위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료업과 관련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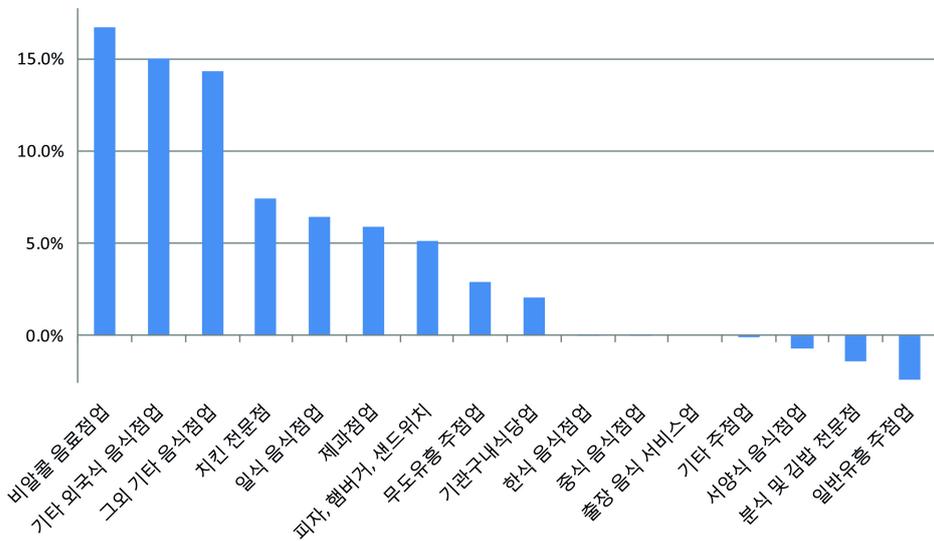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의 연간 증감률을 분석하면 [그림2]와 같다. 1순위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16.7% 증가, 2순위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15.0% 증가, 3순위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14.3% 증가, 4순위 치킨 전문점으로 7.5% 증가, 5순위 일식 음식점으로 6.4% 증가한 순이다. 비알콜 음료점은 통계적 수치로도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면서 커피전문점이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타 외국 음식점업의 증가도 다양한 나라 음식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의 취향을 예상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과 찻집이 연간 16.7%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사업체 수도 음식점 및 주점업 중 8.4%를 차지하고 있는 분석 결과는 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을 많이 찾으면서 그 수가 증가 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 커피전문점의 통계청 세세분류는 '비알콜 음료점'



[그림 1] 2011년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사업체 수



[그림 2] 2008년 ~ 2011년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연간 증감률

사업체 중 연간 감소율이 가장 큰 산업은 '일반유희 주점업'

3년간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2]를 보면 4개의 사업체가 연간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일반유희 주점업으로 2.4% 감소, 그 다음으로 분식 및 김밥 전문점으로 1.4% 감소, 서양식 음식점업으로 0.7% 감소, 기타 주점업으로 0.1%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간 16.7%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비알콜 음료점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연간 늘어나고 있는 커피전문점과 그 반대로 연간 줄어들고 있는 일반유희 주점은 주로 어떤 자치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3년간 증감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II. 자치구별 '커피전문점'은 증가, '일반유희 주점업' 은 감소

‘비알콜 음료점’,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 3년간 증가하는 추세

서울 전체 9,399개의 커피전문점과 찻집들은 어느 자치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을까? [그림3]을 살펴보면 1순위는 강남구 1,128개로 12.0%, 2순위 종로구 819개로 8.7%, 3순위 마포구 759개로 8.1%, 4순위 서초구 630개로 6.7%, 5순위 중구 622개로 6.6%순이다. 비알콜 음료점 사업체가 많은 자치구는 회사들이 밀집되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청년층이 찾는 대학로, 강남거리, 홍대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거리등이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비알콜 음료점의 연간 증감률을 분석하면 25개 자치구 모두 증가했다. [그림4]를 보면 연간 증가율 1순위는 용산구로 28.1%, 2순위는 송파구로 26.4%, 3순위는 마포구로 25.7%, 4순위는 강서구로 25.0%, 5순위는 성동구로 22.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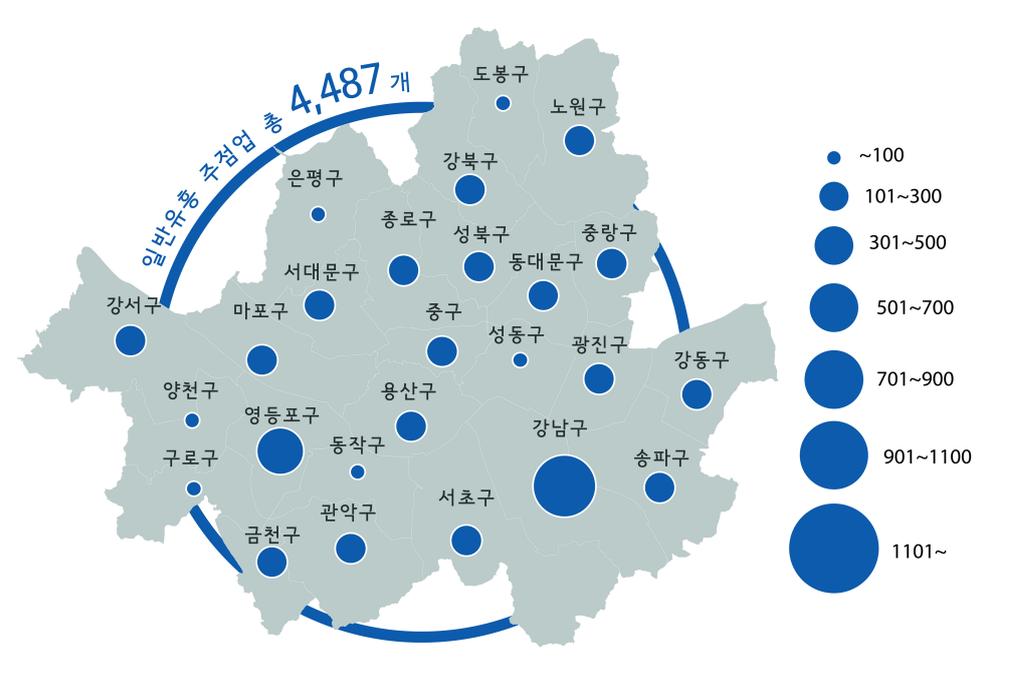
마포구는 사업체 수가 3순위 759개로 많으면서 연간 25.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는 커피전문점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커피산업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유통 주점업’ , 근소하게 증가한 8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

서울 전체 4,487개의 일반유통 주점들의 분포를 살펴봤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비알콜 음료점과 동일하게 1순위는 강남구 635개로 전체 서울의 일반유통 주점 중 14.2%를 차지한다. 2순위는 영등포구 320개로 7.1%, 3순위는 마포구 261개로 5.8%, 4순위는 서초구 257개로 5.7%, 5순위는 관악구 246개로 5.5% 순이다.

서울의 17개 자치구 일반유통 주점들은 2008년부터 2011년 3년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주 근소하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그림6]을 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 1순위는 도봉구로 13.9% 감소, 2순위는 성동구로 9.1% 감소, 3순위는 중구로 7.6% 감소, 4순위는 마포구로 5.2% 감소, 5순위는 강북구로 5.1% 감소한 순이다.

일반유통 주점업도 비알콜 음료점과 같이 마포구가 제일 큰 변화를 보였다. 3순위를 차지하는 261개의 많은 사업체 수에도 불구하고 연간 5.2%씩 감소했다. 서울의 자치구 중 마포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유통 주점업은 줄어드는 반면에 비알콜 음료점인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 자치구별 일반유통 주점 사업체 수



[그림 7] 마포구와 서교동의 위치

가장 많은 비알콜 음료점과 일반유희 주점이 위치한 서교동은 홍대 문화거리에 의해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가졌다. 이 특징은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그리고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근접해있어 더 도드라진다. 마포구의 비알콜 음료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일반유희 주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술보다는 커피나 차를 선호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III. 글을 마치며

서울의 커피전문점들은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적 수치를 보았을 때 서울의 전체 커피전문점들은 연간 16.7%씩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들의 사업체 수 또한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상반되는 현상은 일반유희 주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전체는 연간 2.4%씩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감소하거나 아주 미세하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자치구인 마포구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예상 할 수 있다. 마포구의 행정구역중 서교동이 가장 많은 커피전문점과 일반유흥 주점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서교동은 홍대 문화거리가 위치해있어 젊은 청년층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처럼 젊은 청년층은 점점 술을 마시는 것보다 트렌디한 커피전문점을 찾는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료: 2008년, 2011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자료(통계청)

인포그래픽스

■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2012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349만원으로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1만원으로 최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2012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349만원으로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1만원으로 최저

: 부동산 및 임대업을 포함한 7개 산업은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3.0% 보다 하회



주: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작은 5개 산업 (가구나 교육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채광 및 환경복합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제외

2012년 산업별 월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임금

자료 : 2009, 2012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2012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349만원으로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1만원으로 최저

- 2012년 기준 산업별 월평균 최고 최저 임금은 2.5배 차이
 - 최고 임금액은 금융 및 보험업 349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7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7만원 순
 - 최저 임금액은 숙박 및 음식점업 141만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1만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9만원 순
- 2009~2012년 연평균 최고 최저 임금상승률 차이는 7.4%
 - 임금 상승률 상위 3대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94%, 도매 및 소매업 5.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93%
 - 임금 상승률 하위 3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4%, 교통 서비스업 1.39%,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8%
- 7개 산업은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3.0% 보다 하회
 -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 2.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54%은 월평균 임금도 141만원, 161만원, 169만원 순으로 최저

주: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작은 5개 산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제외

2012년 산업별 월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임금

자료 : 2009, 2012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표 1> 2009년 ~ 2012년 3개월 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

(단위 : 만원)

	2009년 3개월 평균 임금	2012년 3개월 평균 임금	2009-2012년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217.28	239.41	3.29%
건설업	222.62	241.45	2.74%
도매 및 소매업	183.93	213.43	5.08%
운수업	215.66	235.66	3.00%
숙박 및 음식점업	129.54	141.20	2.9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5.85	307.17	4.93%
금융 및 보험업	322.72	349.12	2.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6.26	168.97	0.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4.80	327.01	4.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3.38	160.74	1.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6.66	272.48	7.94%
교육 서비스업	236.85	246.87	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2.72	211.76	3.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2.84	170.30	3.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8.89	184.76	3.04%
평균	208.67	231.36	3.50%

〈표 2〉 2009년 ~ 2012년 전국, 서울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물가지수 기준: 2010년=100)

	전국		서울	
	물가지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지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2009	97.1	2.8%	97.3	2.9%
2012	106.3	2.2%	106.4	2.5%

〈표 3〉 2009년 ~ 2012년 전국, 서울 연평균 물가상승률

지역	연평균 물가상승률	지역	연평균 물가상승률
전국	3.05%	서울	3.03%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소비

서울의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0%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은 1조1,058억원으로 전국(2조4,193억원)의 45.7%,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897억원으로 전국(3조4,226억원)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대형마트 판매는 2.9% 각각 감소하였다. 전국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고용

서울의 4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남·녀 취업자 수는 각각 0.4%, 0.1% 증가, 고용률 0.6%p, 실업률 0.1%p 하락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4개월 연속 줄던 감소폭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으로 7개월 연속 물가지수 증감률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 반면,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0.4% 하락하였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2%p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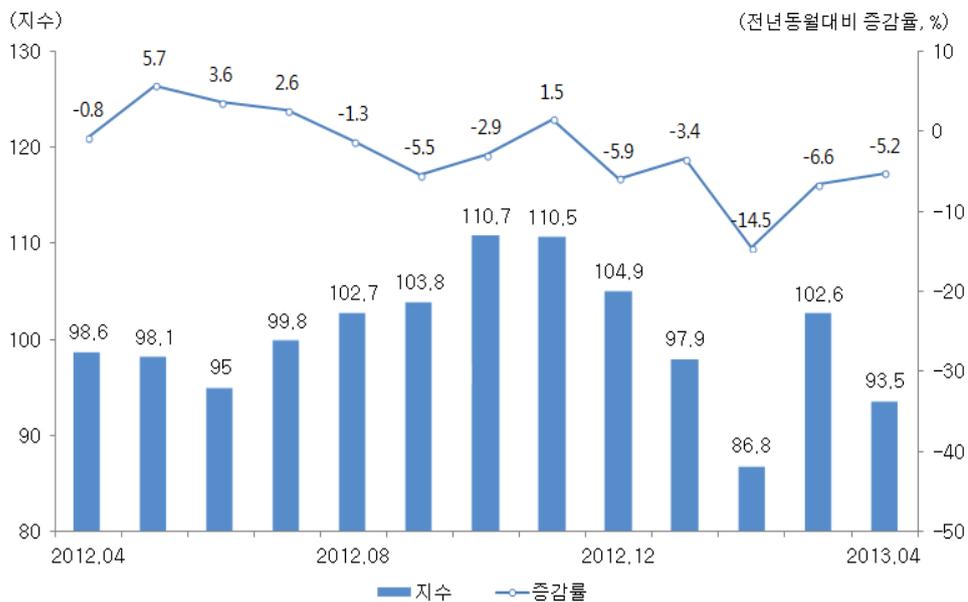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가격은 새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속에 매매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선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특히 관악구와 강서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 생 · 산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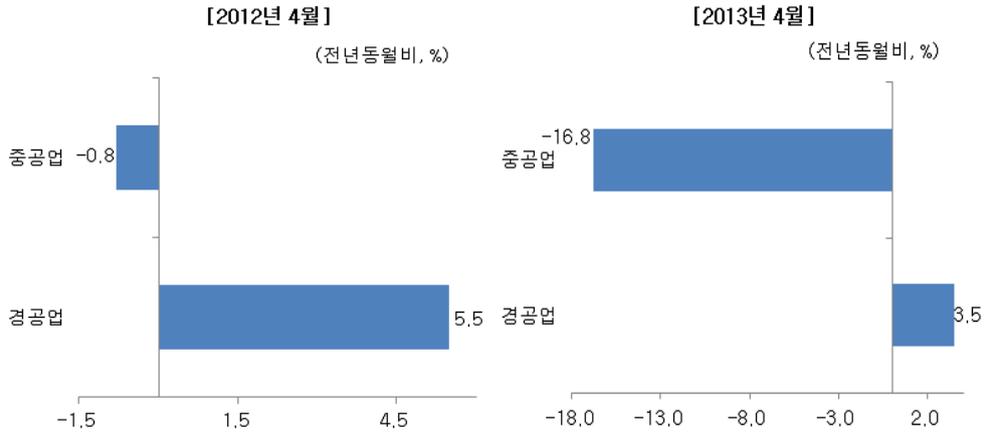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2013년 3월에 비해 다시 하락세

- 서울의 2013년 4월 산업생산지수 93.5(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6.8% 감소, 경공업부문은 3.5% 증가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63.5%), 의료정밀과학(22.8%), 고무 및 플라스틱(20.4%) 증가, 화학제품(-35.4%), 기계장비(-33.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9.6%) 각각 감소
- 3월 지수 100을 상회하다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하락폭은 2개월 연속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은 108.2(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제조업 생산은 108.5(2010=100)이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4.6%), 기계장비(-3.9%)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9.9%), 화학제품(6.4%) 등에서 증가하여 총 1.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예술·스포츠·여가(-3.0%), 숙박·음식점(-1.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7%), 운수(4.1%) 등에서 증가하여 총 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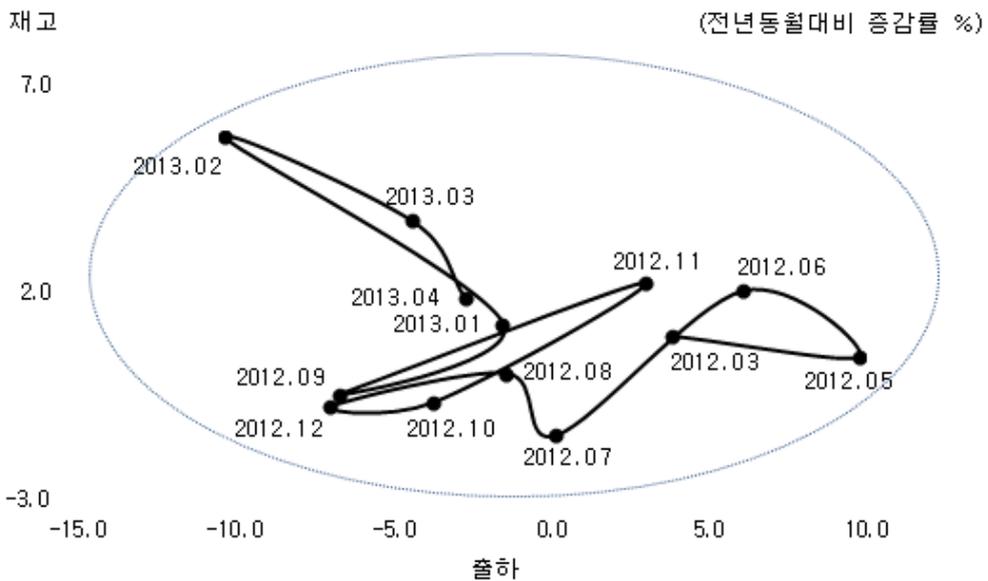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4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4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98.8(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104.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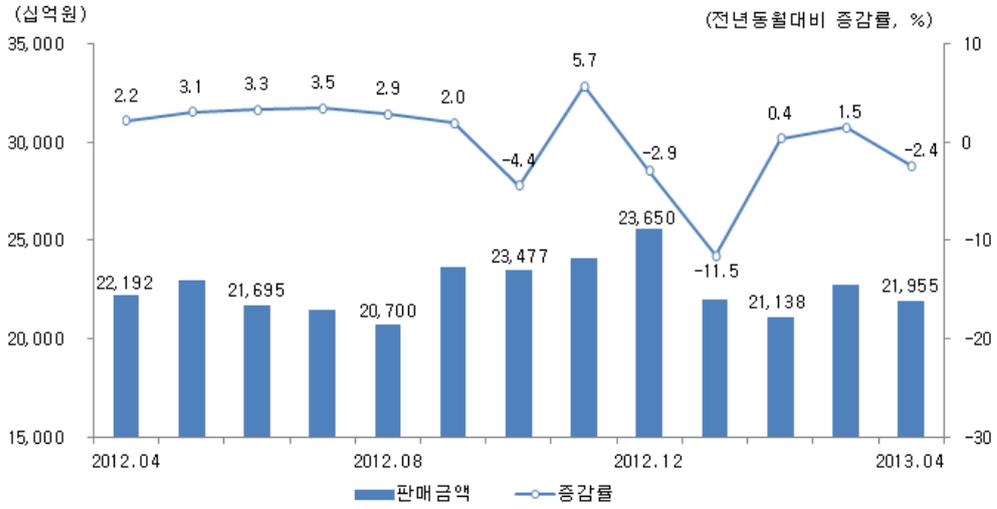
| 소 · 비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감소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955억원으로 전국(5조8,419억원)의 37.6%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058억원으로 전국(2조4,193억원)의 45.7%,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897억원으로 전국(3조4,226억원)의 31.8%를 차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9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대형마트 판매는 2.9%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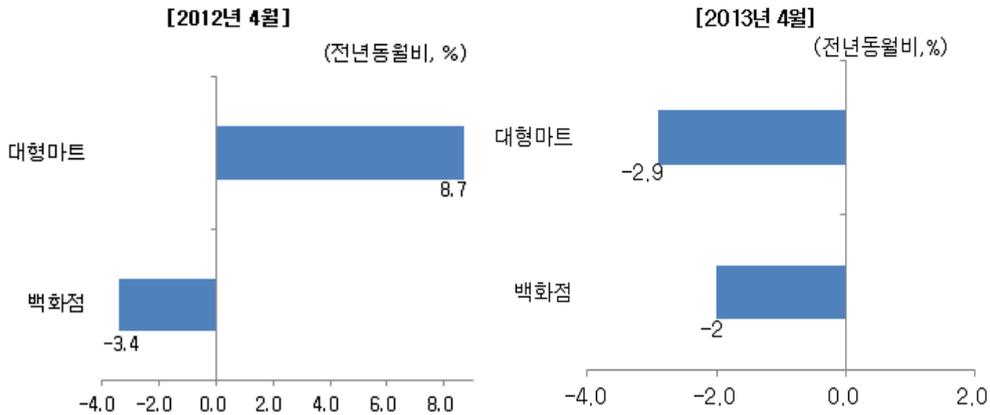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0.7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대형마트는 2.3% 각각 감소

- 전국의 4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편의점(11.5%)가 1위를 차지
 - 전국의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28조 6,5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전국의 4월 소매판매액지수를 재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5.6%),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1%)가 늘어 2.2% 증가
 -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1.5%), 무점포소매(8.4%), 승용차·연료 소매점(6.5%), 슈퍼마켓(5.2%) 등은 증가, 대형마트(-2.3%), 백화점(-2.1%), 전문소매점(-1.8%)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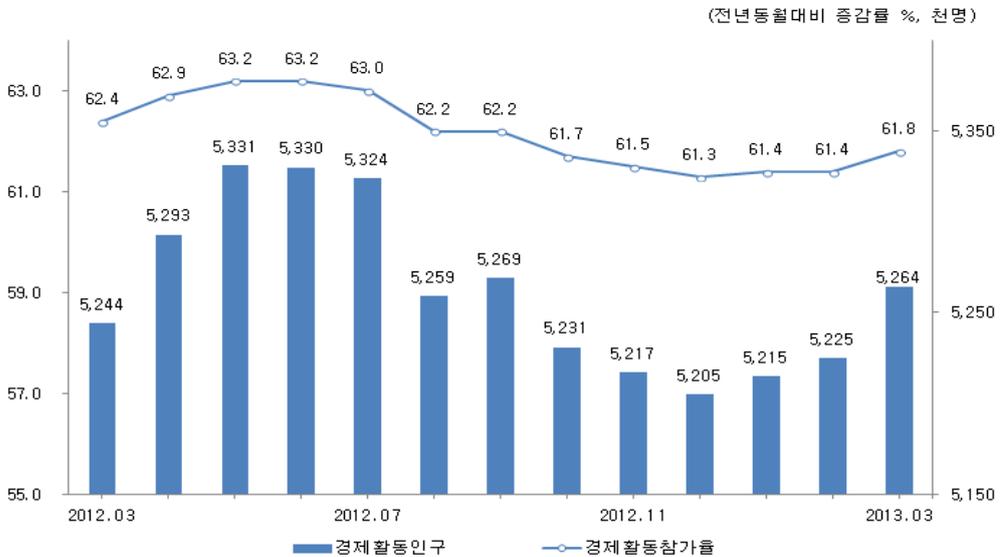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62.2%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서울의 4월 15세 이상 인구는 85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천명(1.2%)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9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1%)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3.2%)이 증가

■ 전국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4월 15세 이상 인구는 4,20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4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9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5천명(1.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08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3천명(0.2%) 하락하였으며, 여자는 1,084만명으로 13만2천명(0.0%)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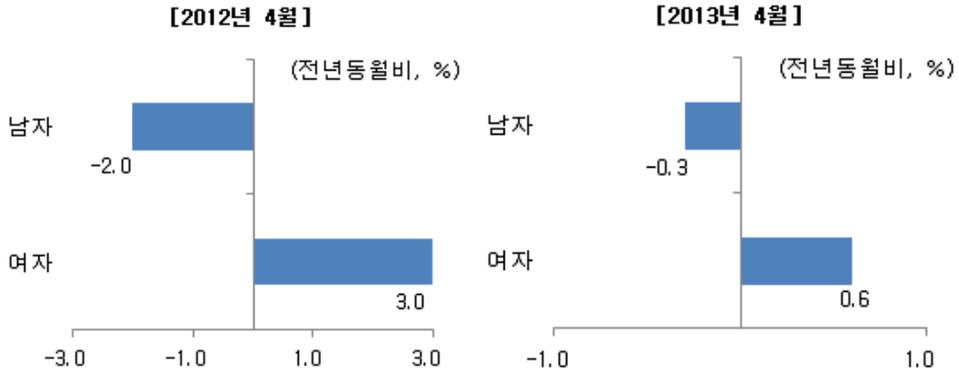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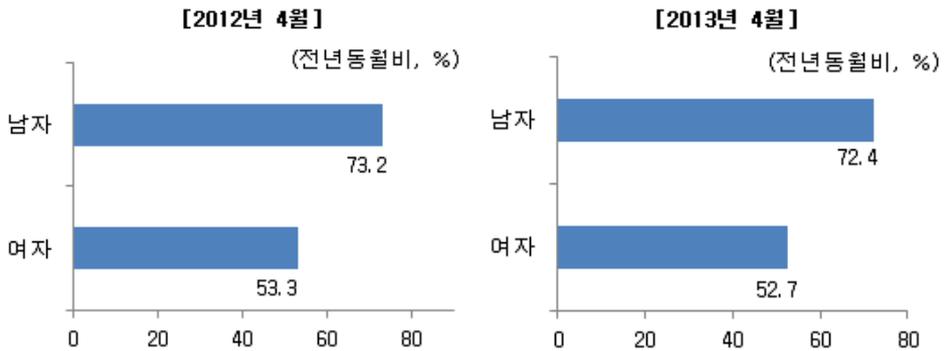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 여자 증가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만5천명, 여자는 23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3% 하락, 여자는 0.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4%, 여자는 52.7%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8%, 여자는 0.6%p 각각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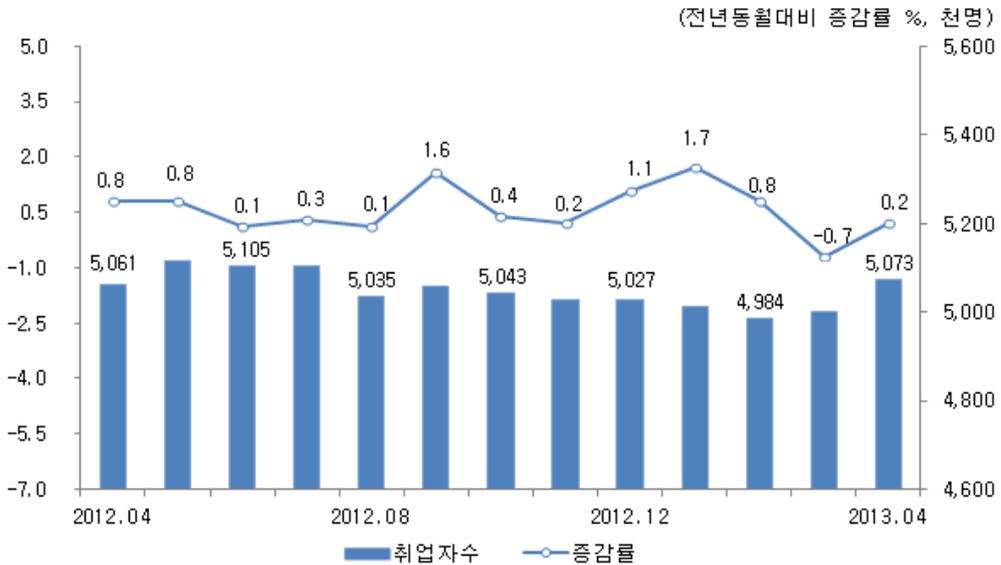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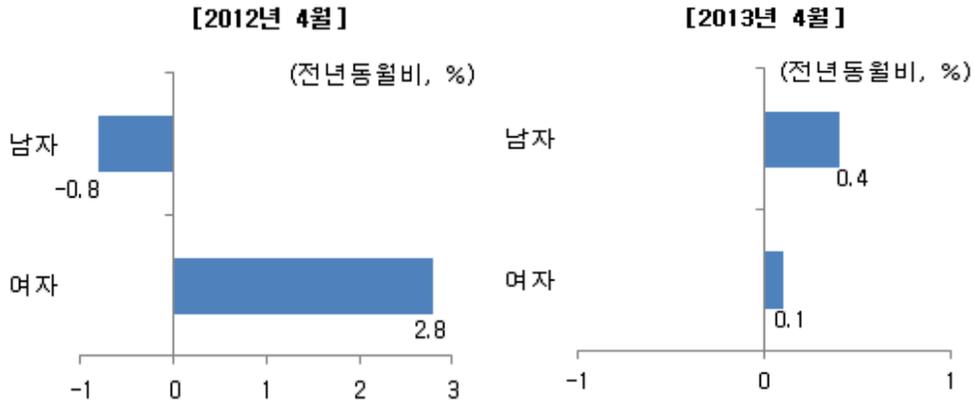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서울의 4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0.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만3천명, 여자는 22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만1천명(0.4%), 여자는 2천명(0.1%) 각각 증가
- 전국의 4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4월 취업자는 2,510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5천명(1.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9천명(1.3%), 여자는 1,051만8천명으로 15만6천명(1.5%)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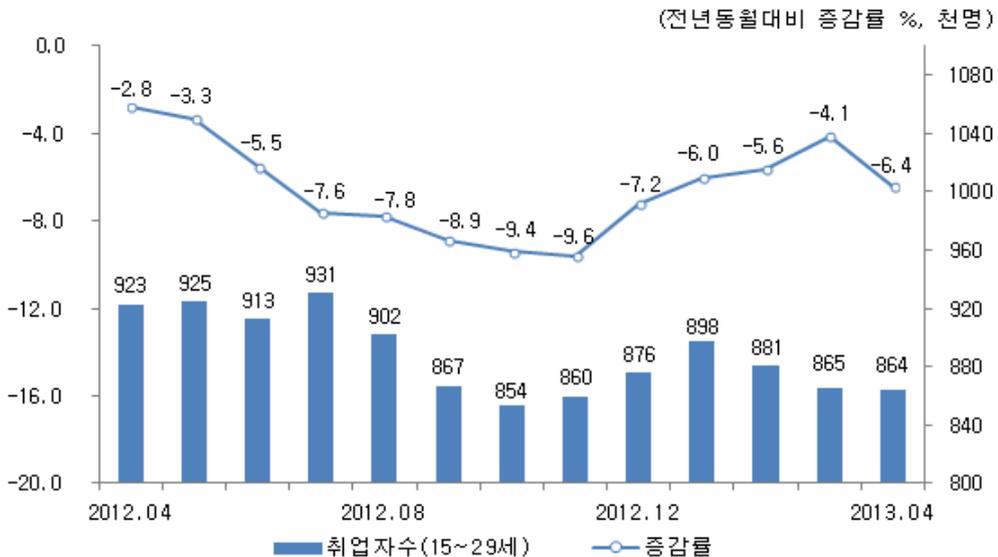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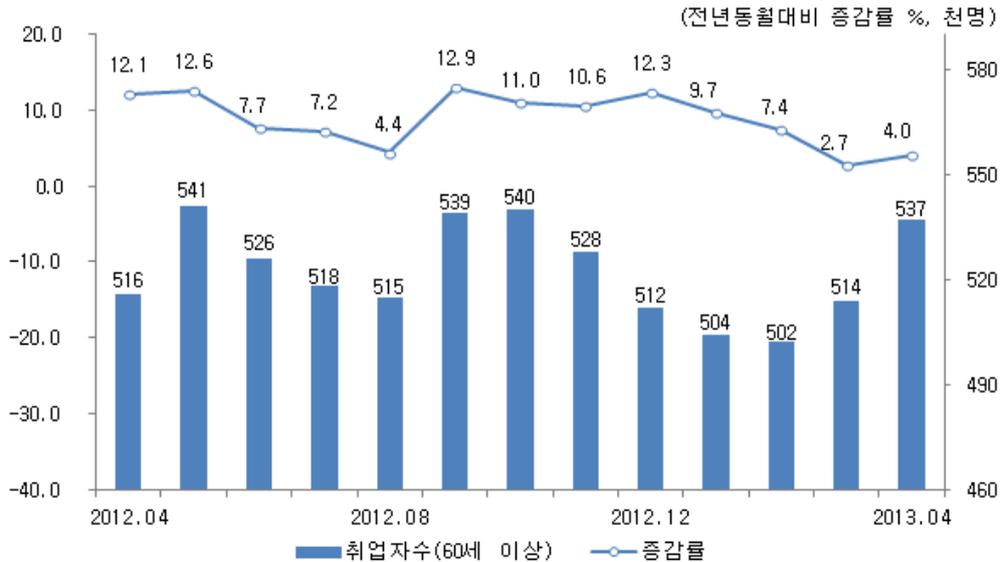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하며 전월대비 감소폭 증가
 -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3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꾸준한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51.9%), 제조업 5만4천명(-10.6%), 건설업 3만1천명(-8.5%), 도소매·음식숙박업 2만3천명(-1.7%) 등은 각각 감소
-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만명(8.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만2천명(2.6%)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사무, 관리자·전문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5만9천명(5.9%), 관리자·전문가 7만1천명(5.0%)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34.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만9천명(-5.6%), 서비스·판매종사자 3만4천명(-2.8%)은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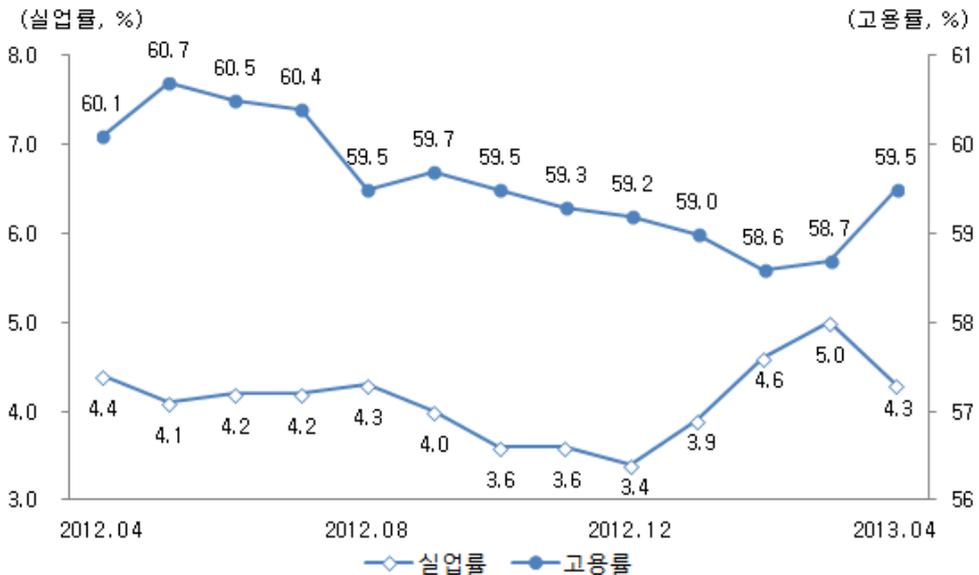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임금, 임금근로자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7천명(-7.6%),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명(-0.7%)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5만9천명(6.8%)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6만1천명(-5.2%), 일용근로자 7천명(-1.9%)이 각각 감소

| 고·용·률·및·실·업·률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

- 서울의 4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4%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여자는 50.4%로 0.8%p 감소
 - 2013년 4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9.8%)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2.9%)이 감소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여자는 4.5%로 0.6%p 증가
 - 2013년 4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2%)에 비하여 1.1%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1%대 상승세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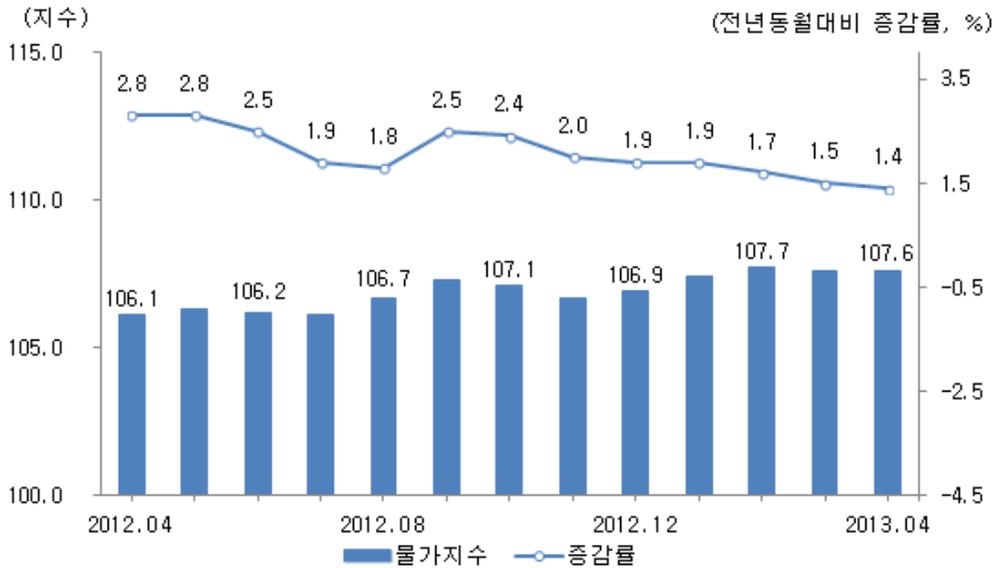
- 2013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와 의류 및 신발이 각각 4.1%, 2.6% 상승, 교통에서 1.6% 감소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1.3% 하락,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는 0.6%, 6.5%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집세는 2.8%, 공공서비스 0.6% , 개인서비스 1.6% 각각 상승

■ 서울의 4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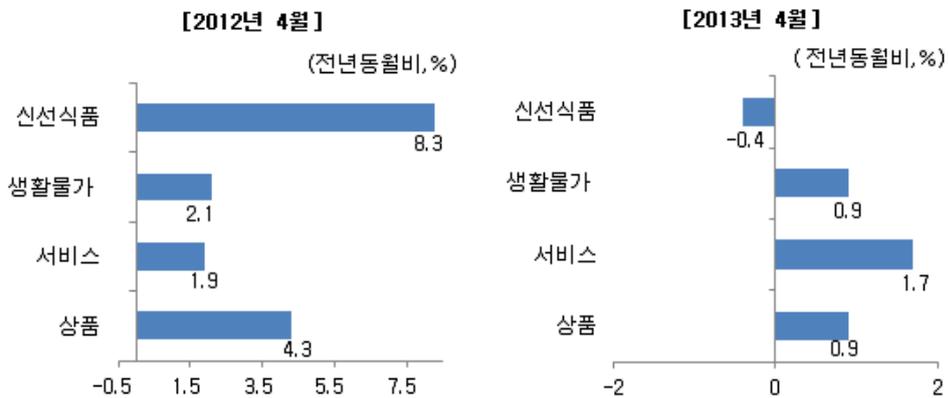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201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충남은 전국보다 높은 1.4~1.8% 상승률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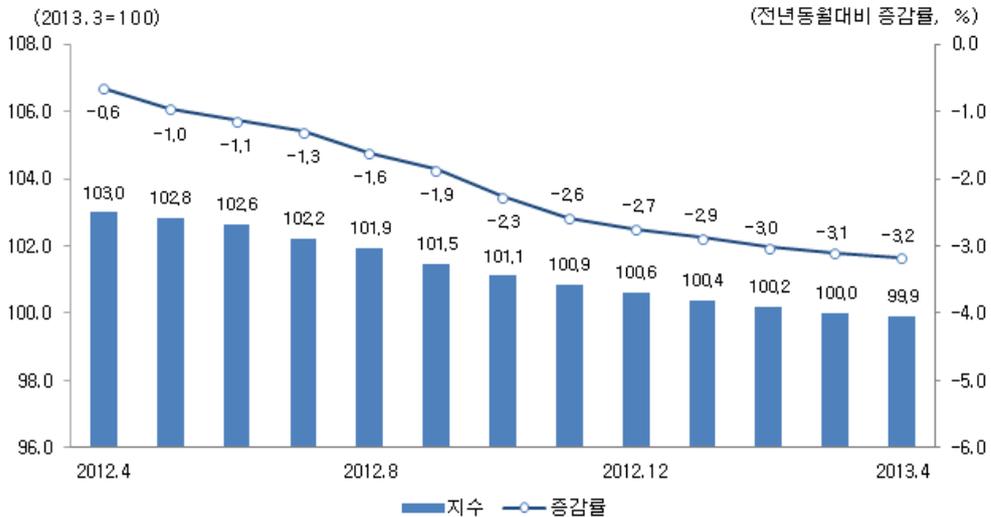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송파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08%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02% 상승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13%, 0.03% 하락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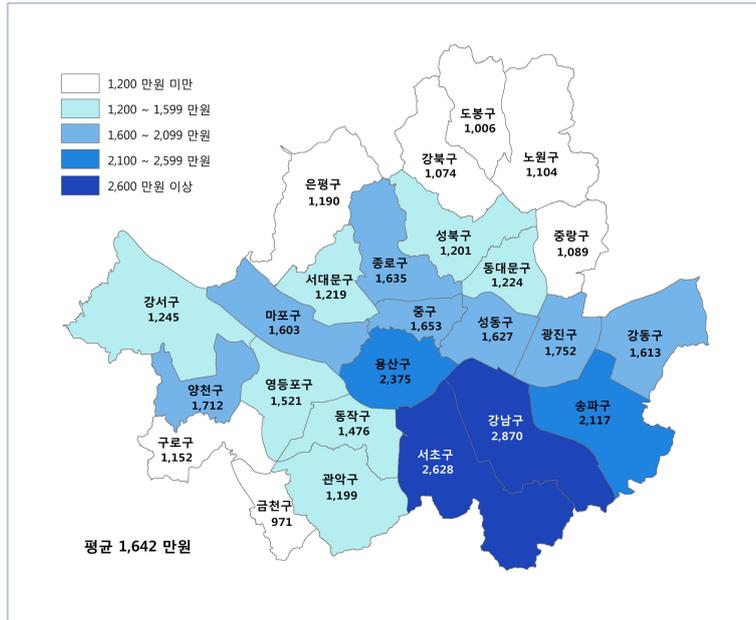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기대가격 차이로 인하여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합세를 보임
- 수도권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13%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19%, 0.1%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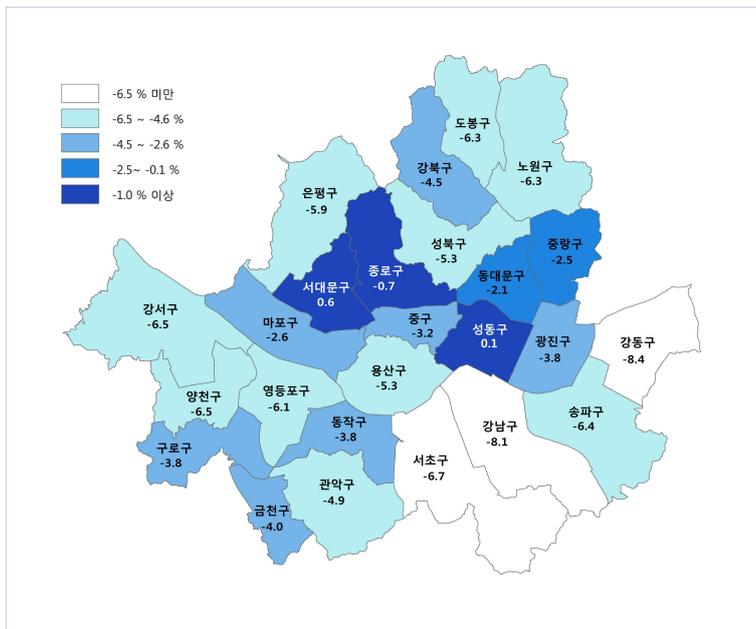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구, 성동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09% 하락**
 - 도봉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유지되며 매매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부위기 속에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0.29%로 큰 폭 하락
- **강남지역은 송파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영등포구, 강서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06% 하락**
 - 송파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단지의 매매거래가 발생하고 삼성 SDS 기업 입주로 인하여 급매물이 거래되며 전월대비 0.14%로 소폭 상승
 - 영등포구와 강서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유지되며 매매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부위기 속에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각각 0.27%, 0.25%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42만원으로 전월대비(1647만원)대비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5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2,870만원), 서초구(2,628만원), 용산구(2,375만원), 송파구(2,117만원), 광진구(1,75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71만원), 도봉구(1,006만원), 강북구(1,074만원), 중랑구(1,089만원), 노원구(1,10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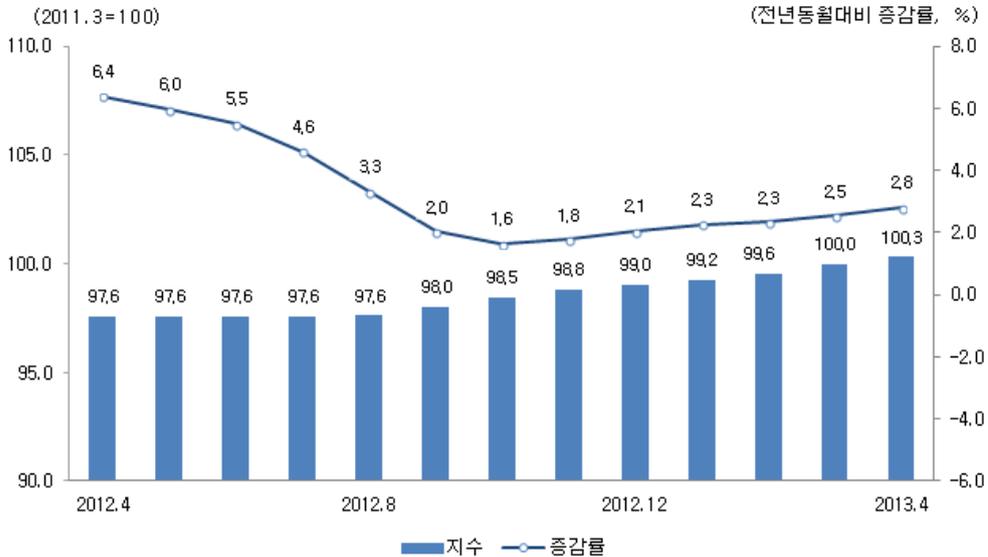
<그림> 4월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은 8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34% 상승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41%, 0.20%, 0.26%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 장기적인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 선호가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새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속에 매매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선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36% 상승
 - 수도권,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36%, 0.38%, 0.3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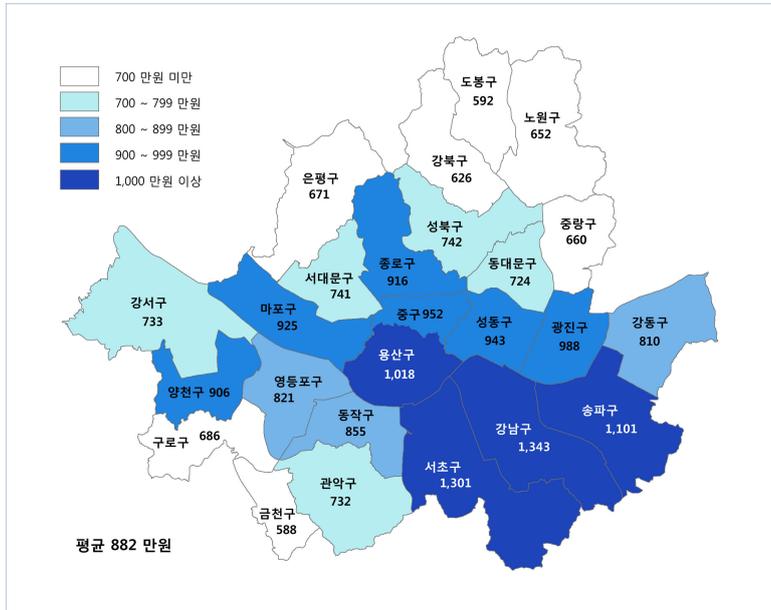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구, 성북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30% 상승**
 - 도봉구에서는 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소형 물건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월대비 0.7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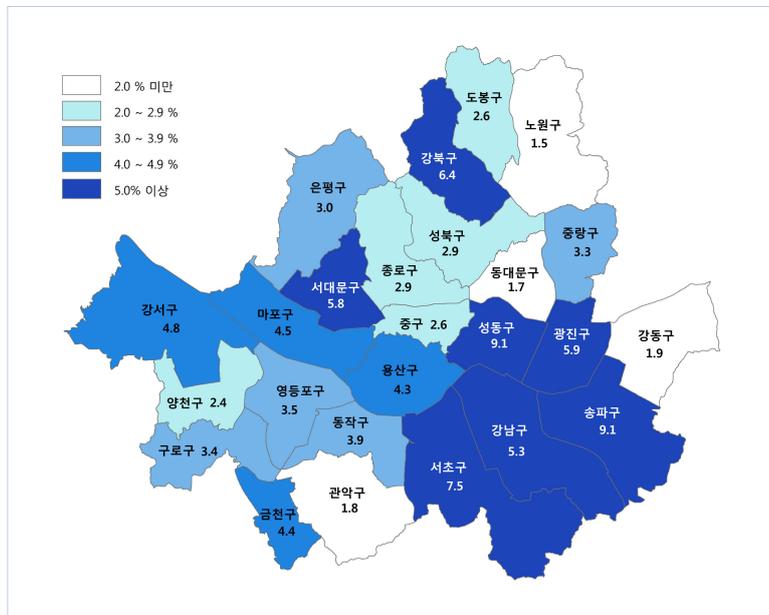
- **강남지역 역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악구와 강서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38% 상승**
 - 관악구는 신혼부부 수요 및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재계약 수요 등이 지속되며 전세물량 부족이 심화되며 전월대비 0.74%로 큰 폭 상승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82.0만원으로 전월대비(879.5만원)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1,343만원), 서초구(1,301만원), 송파구(1,101만원), 용산구(1,018만원), 광진구(98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88만원), 도봉구(592만원), 강북구(626만원), 노원구(652만원), 중랑구(66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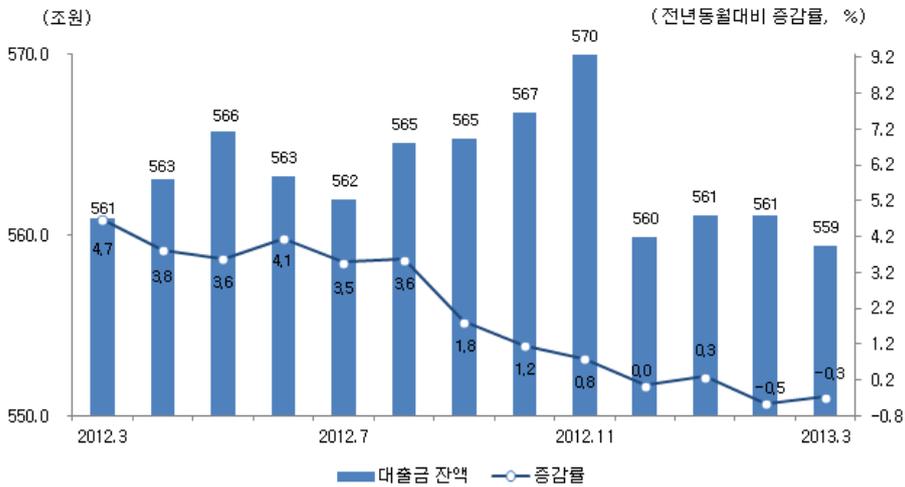
서울의 3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감소

■ 3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3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59조 429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6,625억원(0.3%)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0조 6,635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8조 7,656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감소, 2.8% 증가

■ 3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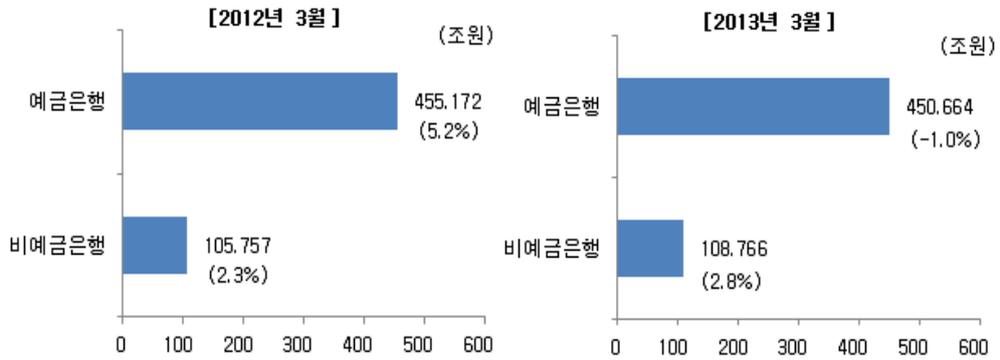
- 3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5조 4,641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1,513억원(0.15%)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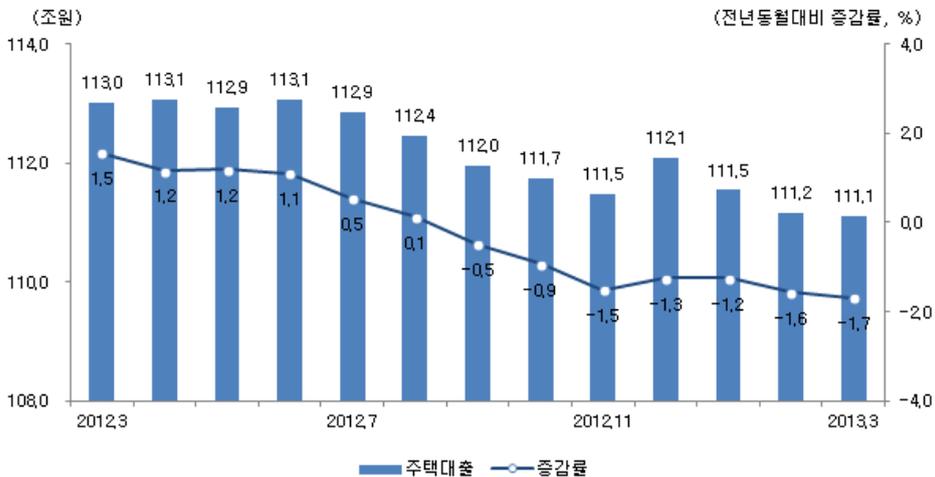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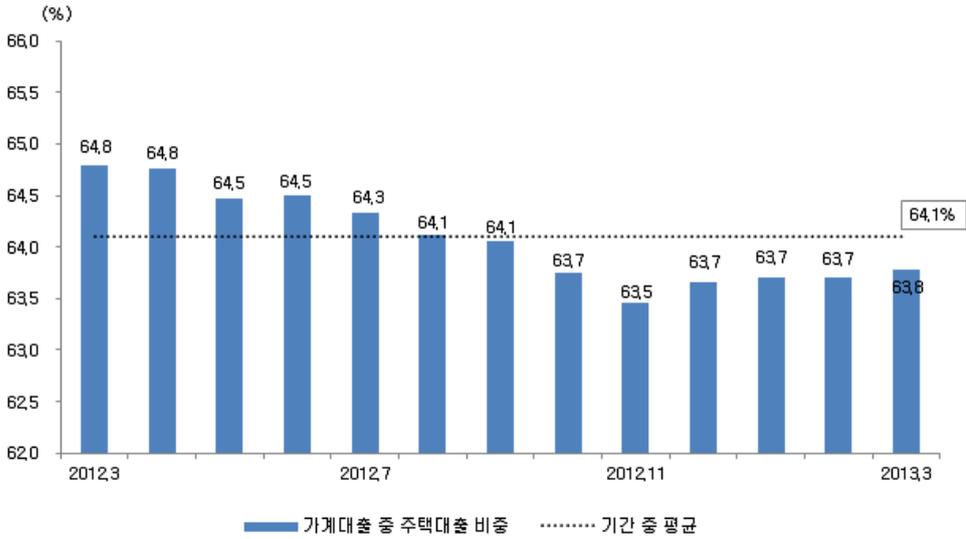
■ 3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3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2,007억원으로 전월대비 2,975억원(0.2%)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1,016억원(64.1%)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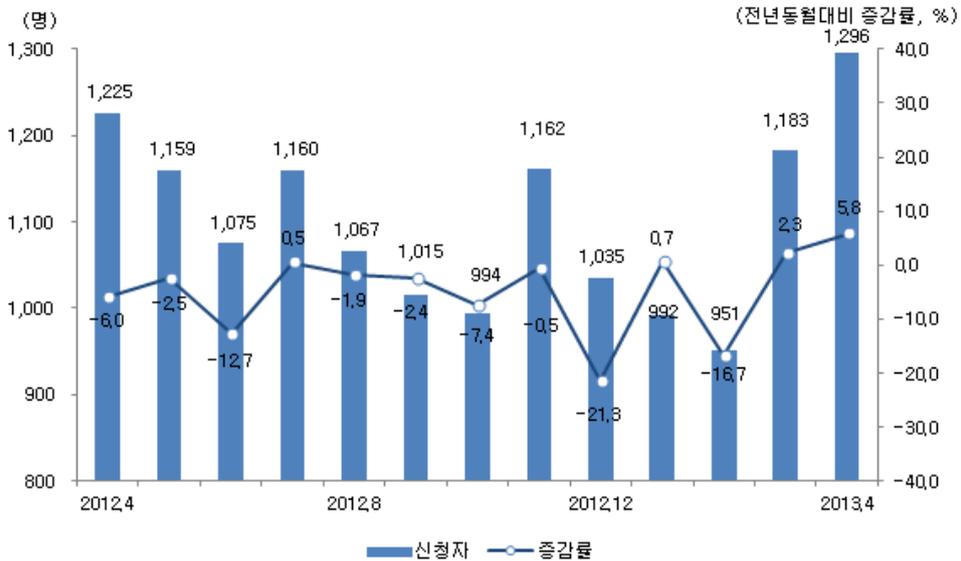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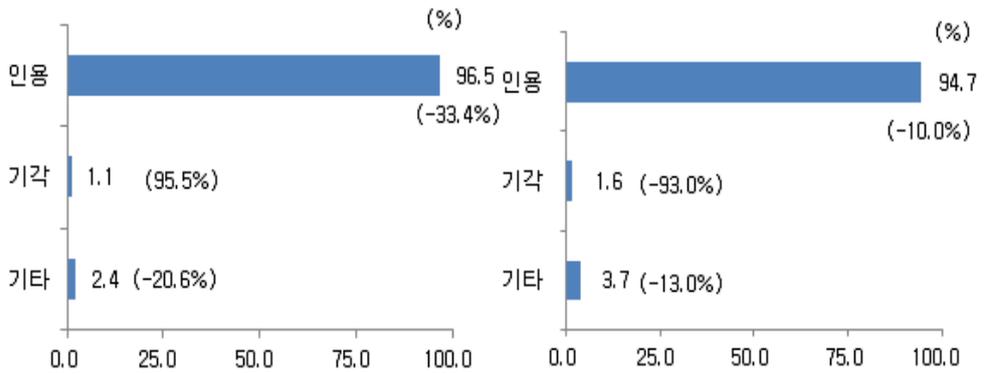
■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296명으로 전월대비 9.6% 증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1%로 전년동월대비 95.9%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2.1%로 전년동월대비 84.6%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4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4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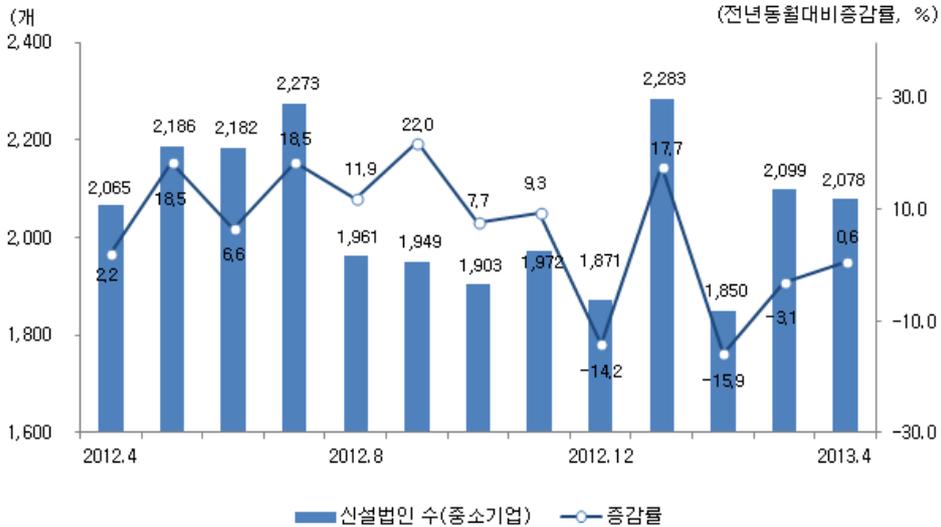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78개로 전월대비 1.0%(21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0.6% (13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8%(1개), 2.1%(36개)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전월대비 5.3%(14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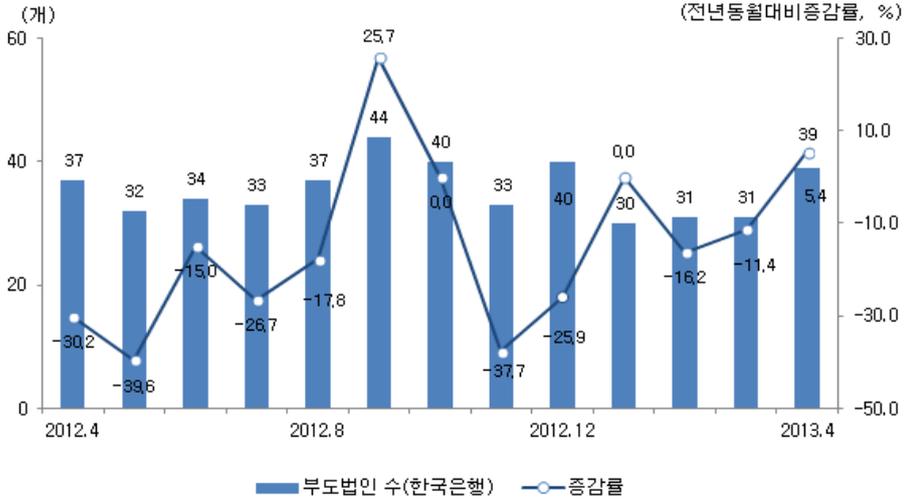
■ 서울의 4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9개로 전월대비 25.8%(8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5.4%(2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300.0%(12개) 증가,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 대비 각각 15.8%(3개), 28.6%(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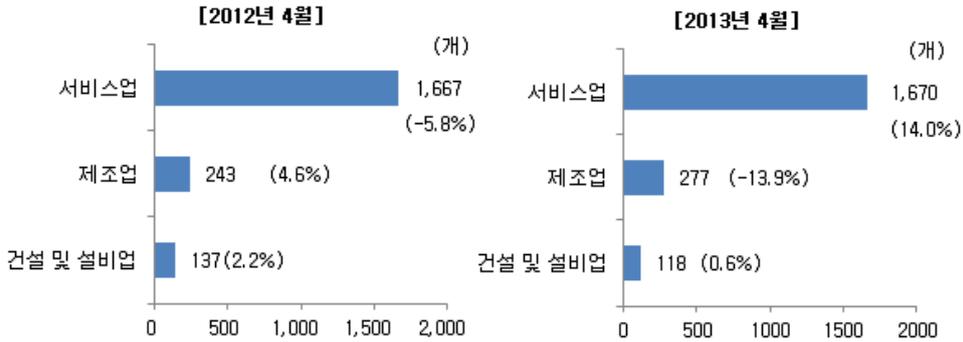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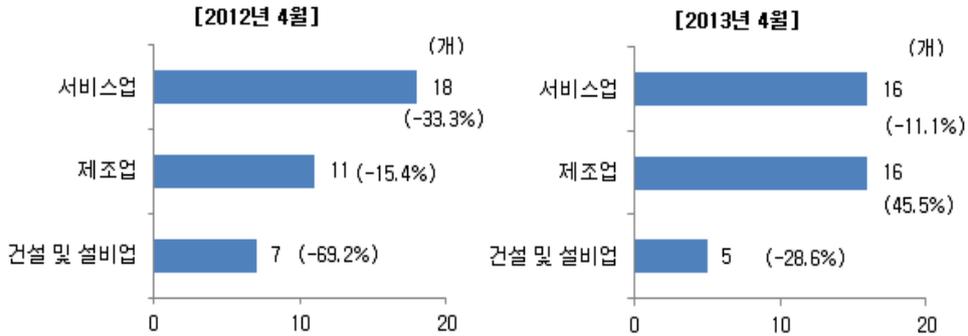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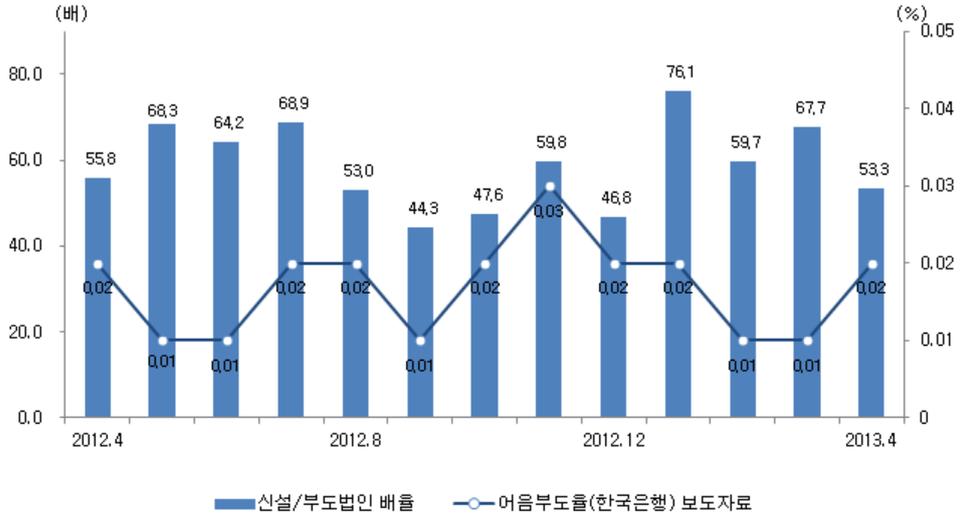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4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4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3.3배로 전월(67.7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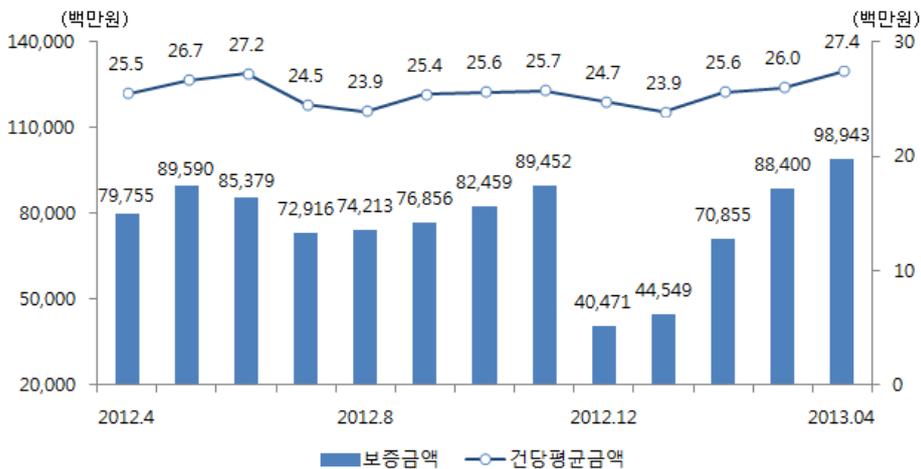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4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98,943백만원, 3,615건으로 전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11.9%, 6.3%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5.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24.1%, 15.5%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7.6%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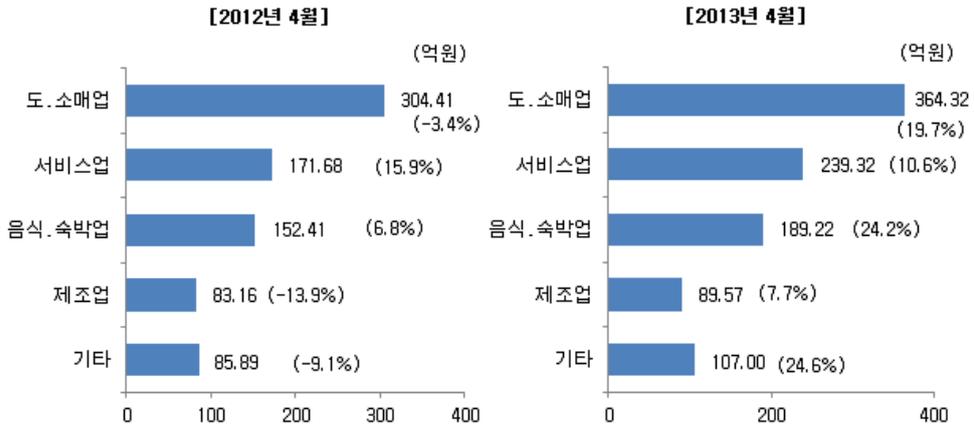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4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1%로 전월(10.1%) 대비 1.0%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6.8%로 전월(37.7%) 대비 0.9%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8%로 전월(7.9%)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5%로 전월(37.2%)대비 0.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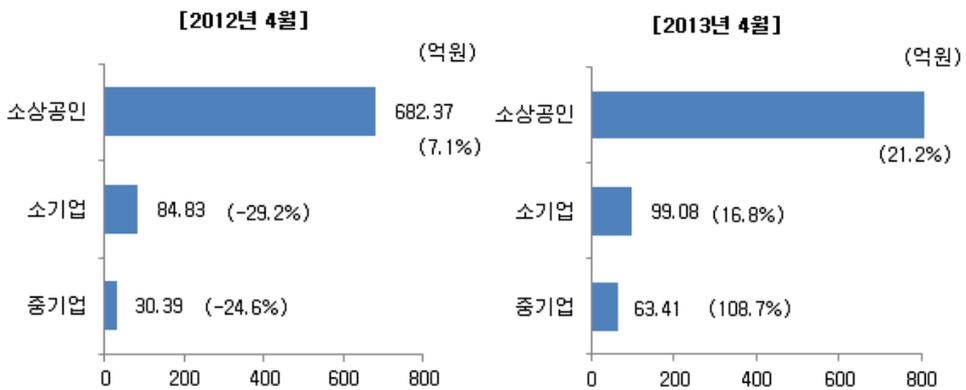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3.6%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3.7%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0.0%로 전월대비 1.7%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4.0%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4%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3%로 전월대비 0.4%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4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였고 수입은 109.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은 438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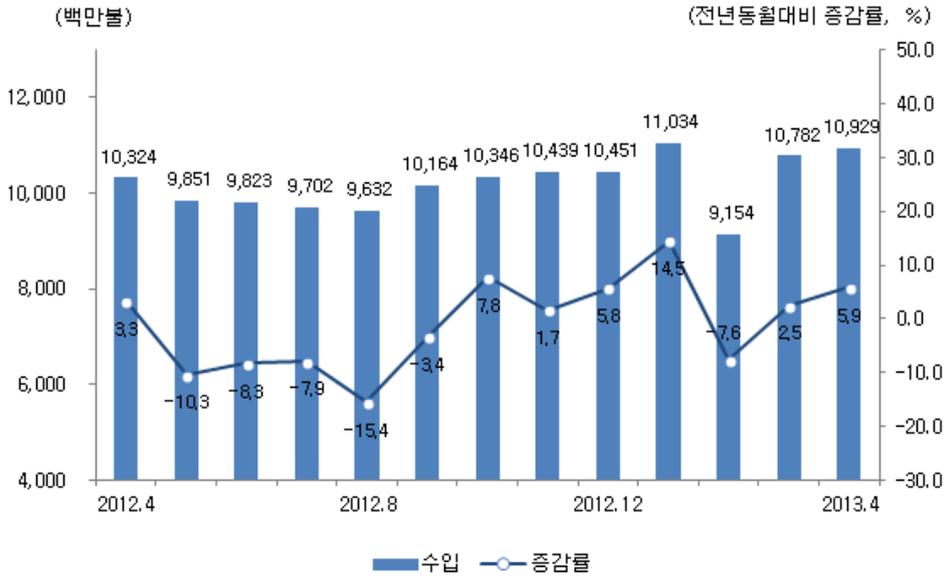
■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16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85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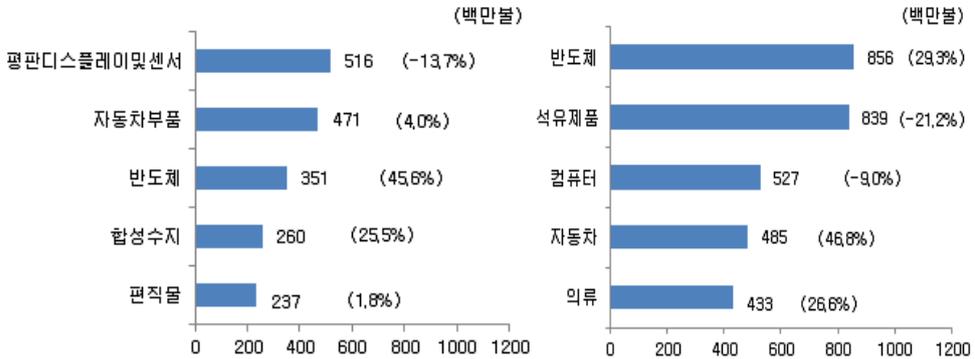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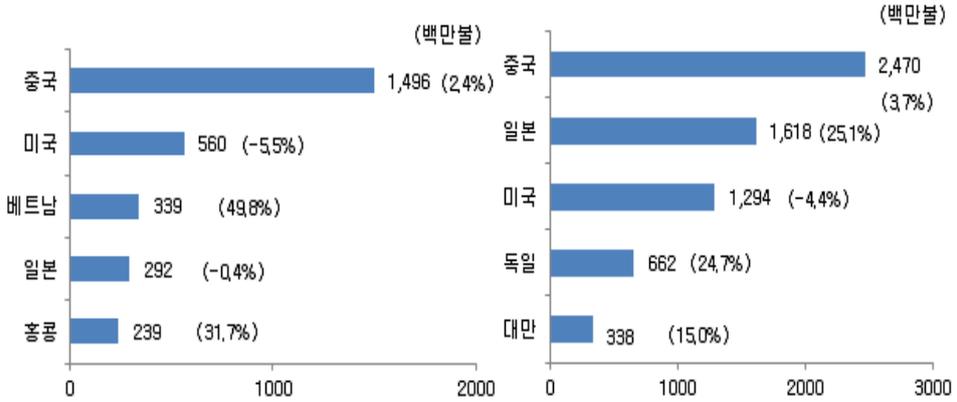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4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 1,496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2,47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부 록 :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금 융

■ 부 동 산

1.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1/4	98.6	94.0	104.1	96.3	98.8	100.8	
	2/4	96.4	103.7	95.1	103.1	92.9	95.6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p	102.4	98.0	110.1	102.7	107.3	109.8	
2011.	4	99.4	100.4	98.8	98.9	101.6	103.0	
	5	90.3	97.6	88.0	96.8	102.1	103.7	
	6	87.8	99.3	85.6	98.9	100.6	103.7	
	7	93.0	103.6	91.2	105.8	104.2	105.0	
	8	98.9	106.6	97.4	106.9	103.7	104.3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	94.6	98.9	104.0	104.7	106.9	109.1	
	3p	105.6	99.9	111.7	103.5	107.3	109.8	
	4p	94.1	95.2	99.1	99.5	104.3	105.8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1/4	-2.7	8.5	98.6	1.6	10.8	104.1	1.0	-1.9	98.8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1/4p	-5.2	-7.1	102.4	-0.8	-4.5	110.1	3.6	3.7	107.3
2011. 4	-3.3	0.5	99.4	-3.9	-0.8	98.8	1.1	4.1	101.6
5	-2.8	-4.6	90.3	-2.1	-4.7	88.0	0.7	4.2	102.1
6	1.7	-8.3	87.8	2.2	-8.4	85.6	0.0	8.3	100.6
7	4.3	-1.0	93.0	7.0	2.2	91.2	1.3	5.1	104.2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8.7	-3.8	105.0	-5.1	-1.2	113.0	-0.8	1.3	106.5
2	5.5	-12.8	94.8	7.0	-8.5	105.3	1.0	3.0	104.1
3p	1.0	-6.3	105.6	-1.1	-4.0	111.7	0.6	3.7	107.3
4p	-5.0	-4.7	94.1	-4.1	-2.6	99.1	-3.0	1.8	104.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4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3	2013.2	2013.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17	8,515	8,523	105	1.2
경제활동인구	5,293	5,264	5,299	6	0.1
(참가율)	(62.9)	(61.8)	(62.2)	(-0.7p)	-
남 자	2,974	2,963	2,965	-9	-0.3
(참가율)	(73.2)	(72.4)	(72.4)	(-0.8p)	-
여 자	2,320	2,302	2,334	15	0.6
(참가율)	(53.3)	(52.1)	(52.7)	(-0.6p)	-
취 업 자	5,061	4,999	5,073	12	0.2
(고용률)	(60.1)	(58.7)	(59.5)	(-0.6p)	-
농림어업	5	3	3	-3	-51.9
광공업	508	443	455	-54	-10.5
· 제조업	507	443	454	-54	-1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47	4,554	4,616	69	1.5
· 건설업	365	332	334	-31	-8.5
· 도소매·음식숙박업	1,327	1,289	1,305	-23	-1.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39	2,075	2,091	52	2.6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16	858	886	70	8.6
실 업 자	233	265	226	-7	-2.9
(실업률)	(4.4)	(5.0)	(4.3)	(-0.1p)	-
비경제활동인구	3,124	3,251	3,224	100	3.2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4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3	2013.2	2013.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061	4,999	5,073	12	0.2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406	1,450	1,476	71	5.0
	사무종사자	1,002	1,047	1,061	59	5.9
	서비스판매종사자	1,233	1,194	1,199	-34	-2.8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3	6	8	-4	-34.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407	1,302	1,328	-79	-5.6
성 별	남자	2,832	2,817	2,843	11	0.4
	여자	2,228	2,183	2,230	2	0.1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73	1,085	1,095	-78	-6.6
	자영업주	1,007	930	931	-77	-7.6
	무급가족종사자	166	155	164	-1	-0.7
	임금근로자	3,888	3,915	3,978	90	2.3
	상용근로자	2,323	2,440	2,482	159	6.8
	임시근로자	1,177	1,104	1,116	-61	-5.2
	일용근로자	387	371	380	-7	-1.9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569	518	535	-34	-6.0
	1-17시간	219	178	179	-39	-18.0
	18-35시간	351	339	356	5	1.5
	36시간 이상	4,429	4,412	4,473	44	1.0
	36-53시간	3,157	3,362	3,331	174	5.5
	54시간이상	1,273	1,050	1,142	-130	-10.2
	일 시 휴 직	62	70	64	2	3.5
	주당평균취업시간	45.4	44.4	44.9	-0.5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8.	11	4,897	-1.6	194	-4.9	3.8	3,189	5.3	
	12	4,853	-1.2	195	-6.6	3.9	3,237	4.5	
2009.	10	4,840	-1.4	192	3.4	3.8	3,306	3.2	
	11	4,879	-0.4	216	11.3	4.2	3,248	1.8	
	12	4,877	0.5	208	6.6	4.1	3,261	0.7	
2010.	4	4,925	1.9	264	3.9	5.1	3,184	-1.2	
	5	4,995	2.9	219	-9.1	4.2	3,167	-1.7	
	6	4,988	2.0	221	-5.8	4.2	3,177	-0.7	
	7	5,013	3.1	234	-4.8	4.5	3,144	-2.4	
	8	4,962	3.6	223	-0.3	4.3	3,209	-3.4	
	9	4,960	3.3	225	5.1	4.3	3,210	-3.3	
	10	4,972	2.7	239	24.1	4.6	3,186	-3.6	
	11	4,981	2.1	213	-1.5	4.1	3,206	-1.3	
	12	4,998	2.5	224	7.3	4.3	3,184	-2.4	
	2011.	4	5,021	1.9	263	-0.2	5.0	3,125	-1.9
		5	5,074	1.6	243	11.1	4.6	3,097	-2.2
		6	5,098	2.2	236	6.7	4.4	3,079	-3.1
7		5,089	1.5	226	-3.5	4.2	3,093	-1.6	
8		4,962	1.4	223	1.7	4.3	3,141	-2.1	
9		4,979	1.4	223	107	4.3	3,141	-2.1	
10		5,024	1.0	210	-12.0	4.0	3,147	-1.2	
11		5,018	0.7	208	-2.4	4.0	3,150	-1.8	
12		4,971	-0.5	223	-0.3	4.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4.7	3,220	-0.8
		2	4,925	-4.0	287	13.0	5.5	3,168	-0.6
		3	4,991	0.2	253	-11.5	4.8	3,164	0.7
	4	5,061	0.8	233	-11.7	4.4	3,124	0.0	
	5	5,115	0.8	216	-11.1	4.1	3,099	0.1	
	6	5,105	0.1	226	-4.2	4.2	3,110	1.0	
	7	5,102	0.3	221	-2.0	4.2	3,130	1.2	
	8	5,035	0.1	224	-1.1	4.3	3,201	1.9	
	9	5,057	1.6	212	-8.3	4.0	3,197	0.6	
	10	5,043	0.4	188	-10.4	3.6	3,241	3.0	
	11	5,029	0.2	188	-9.4	3.6	3,264	3.6	
	12	5,027	1.1	178	-20.0	3.4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9	3,285	2.0	
	2	4,984	0.8	241	-16.0	4.6	3,283	3.6	
	3	4,999	0.2	265	4.7	5.0	3,251	2.7	
	4	5,073	0.2	226	-2.9	4.3	3,224	3.2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3.3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85.3	92.0	86.4	97.8	98.9	90.2	106.4	
2007	88.0	96.9	93.9	100.3	102.5	97.8	106.9	
2008	90.7	101.8	102.1	101.5	105.8	106.9	104.8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109.1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109.6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109.6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109.5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109.0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108.5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107.9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107.4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7.1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07.0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06.9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107.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107.3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107.7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107.9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107.8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107.7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107.5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107.3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107.2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7.1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06.9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06.6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106.4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106.1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105.9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105.6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105.0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104.7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104.3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103.7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103.1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01.7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01.3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100.5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100.2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99.9

주: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73.8	74.0	73.9	74.1	73.1	72.6	73.4	
2007	75.7	76.8	77.9	75.7	74.7	75.9	73.7	
2008	76.9	77.6	80.6	74.9	73.4	76.3	71.0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주: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4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매매가격
강 북 구	100.0	100.1	99.7	100.4	1074.2
광 진 구	100.0	100.2	99.9	100.3	1752.2
노 원 구	99.9	100.1	100.0	100.1	1103.9
도 봉 구	99.7	100.8	99.5	100.6	1005.6
동대문구	99.9	100.3	99.8	100.5	1223.8
마 포 구	99.8	100.2	99.8	100.3	1602.8
서대문구	99.9	100.4	99.9	100.5	1218.9
성 동 구	99.8	100.6	99.7	100.7	1626.8
성 북 구	100.0	100.6	99.8	100.6	1201.0
용 산 구	99.8	100.2	99.8	100.2	2375.4
은 평 구	100.0	100.2	99.9	100.4	1189.9
종 로 구	100.0	100.1	99.9	100.1	1635.1
중 구	99.9	100.5	99.9	100.3	1653.5
중 랑 구	100.0	100.1	100.0	100.1	1088.6
강 남 구	100.0	100.0	99.9	100.0	2870.1
강 동 구	100.1	100.3	100.1	100.4	1613.3
강 서 구	99.7	100.6	99.6	101.0	1245.3
관 약 구	100.0	100.7	99.8	100.7	1199.2
구 로 구	99.9	100.4	99.8	100.4	1152.3
금 천 구	99.8	100.5	99.8	101.1	971.5
등 작 구	99.9	100.1	99.9	100.5	1475.6
서 초 구	100.0	100.2	100.0	100.1	2627.9
송 파 구	100.1	100.5	100.3	100.6	2116.7
양 천 구	99.8	100.2	99.8	100.3	1711.7
영등포구	99.7	100.5	99.6	100.8	1521.1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률(₩/U\$)	
2006	4.83	5.17	4.48	4.19	1,352.2	955.5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2006	19,801	1,717	1,714	16,344	0.06	891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분	2013년			전월비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1,850	2,099	2,078	-21	-1.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9	11	13	2	18.2
제조업 계	230	263	277	14	5.3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31	27	33	6	22.2
섬유 및 가죽	47	54	55	1	1.9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6	14	10	-4	-28.6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	10	6	-4	-40.0
고무 및 화학제품	31	38	37	-1	-2.6
기계, 금속	30	23	33	10	43.5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53	76	75	-1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4	4	4	0	0.0
기타 제품제조업	26	17	24	7	41.2
건설업 계	99	119	118	-1	-0.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8	7	-1	-12.5
건설업	96	111	111	0	0.0
서비스업 계	1,512	1,706	1,670	-36	-2.1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0	1	5	4	400.0
도매 및 소매업	395	463	499	36	7.8
운수업	32	37	36	-1	-2.7
숙박 및 음식점업	36	39	41	2	5.1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24	333	330	-3	-0.9
금융 및 보험업	0	212	180	-32	-15.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8	119	120	1	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	302	249	-53	-17.5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103	107	97	-10	-9.3
교육서비스업	39	49	53	4	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2	31	29	1,45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22	22	31	9	4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463	20	22	2	10.0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4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4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4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5월호)

2005년 3월호

[권두칼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정병순

2005년 4월호

[권두칼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2005년 5월호

[권두칼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도약 및 향후 발전 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2005년 6월호

[권두칼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립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립

2005년 7월호

[권두칼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김현아

2005년 8월호

[권두칼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2005년 9월호

[권두칼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2005년 10월호

[권두컬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 김진호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 박희석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 오승구

2005년 11월호

[권두컬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김성진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한정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 홍순영

2005년 12월호

[권두컬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 나성린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 서승환
2006년 서울경제전망| 윤형호, 최태립

2006년 1월호

[권두컬럼]
윤리경영, 환경경영| 조동성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 윤형호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박희석, 홍나미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린

2006년 2월호

[권두컬럼]
수도권의 경쟁력| 왕연균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 김경환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정희운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 전성근

2006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행방은 어디로 ...| 박희석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
| 정병순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전| 박래현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오근

2006년 4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신창호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 윤형호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 이병민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석근

2006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정병순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 | 최경규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 | 김상일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이동직

2006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 | 신창호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 윤형호, 최태림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 | 이동기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
 견조사 | 박희석, 박지운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
 를 향하여 | 황인식

2006년 7월호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 | 송용일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최경규
 한국기술평가의 현황 | 양동우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조유근

2006년 8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 | 라도삼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
 | 구문모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
 | 주성재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성용

2006년 9월호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 박정수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 | 김진영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 | 안중석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 임
 일영

2006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 | 김철원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 | 김찬동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 | 박종구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김이기

2006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2006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
 로|신창호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
 화|정병순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운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1월호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
 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
 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
 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
 로 변신|강현주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재고」를 위한 발전방향
 |김영수

2007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
 박창일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 김남현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 원용희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윤·박희석

[자치구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재형

2007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 유병규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오찬수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 정병순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 산업경제센터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윤경숙

2007년 6월호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 김철원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

금기용

서울시 컨벤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진홍석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 을 꿈꾸다 강현주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이동명

2007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 이윤보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전인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
신창호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박희석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
제 활성화 방안 이윤내원

2007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 조경엽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부경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조항문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 강현주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 박지희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
최영수

2007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 차문중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 고준성
한미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김범수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 박희석·박지희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권장오

2007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 정경원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 신창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 최두은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 강현주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경림

2007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 김문환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 장광렬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 박용재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 산업경제센터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윤중

2007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 안정숙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 장동찬
서울시 드라마 산업 고정민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덕수

2008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 김경환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 최재헌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 홍석기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 박희석·박지희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김상호

2008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 박영범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유길상
 외국인력 정책과제 이규용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자선

2008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 장운중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이홍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 |전영재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 박희석·권태구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박기순

2008년 4월호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 박영순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 장동련
 디자인 서울 윤종영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 조달호·김세훈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벨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고광득

2008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 전택수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옥성수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 라도삼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 황필성

2008년 6월호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 김정인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고준호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 이부형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윤영표

2008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지역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현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 전인우
지역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손민중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지역업의 위험성 조달
호김세훈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
김재형

2008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승록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한진아
고유가와 민생대책 이달석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 조달호김세훈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동욱

2008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 김태희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 이경희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 윤남수
[생생리포트]
경기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 조
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
태두

2008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
김영인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
김민자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 조익래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
경제 활성화 하익봉

2008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
이주선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임준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 윤형호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
망 조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 임수근

2008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 최경수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 이부형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 김선빈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2009년 1월호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 박희석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 김선홍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선인명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 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종규

2009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 권형준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 윤형호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 유주환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김백곤

2009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 김정인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 이정택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 박병욱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봉로

2009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 김성수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 김문기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 조달 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진호

2009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
안부경진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 고준
호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 발전방안 주대영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 심규표

2009년 6월호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규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 윤형호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허재준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 배영철

2009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창석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 양재섭

장남중권미리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
칙이왕건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대 권장오

2009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 위정현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 장현영

게임한류의 성과 김민규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례 박경호

2009년 9월호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 최생림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 윤형호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
창래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통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
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영환

2009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 김찬화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 여재천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 윤수영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박희석
한진아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 김은혜

2009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재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
이지평

[자치구탐방]

「중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용순

2009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
정희운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크 전략 김찬동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
점 김영수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 이미령

2010년 1월호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 라도삼

[경제포커스]

다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 최성호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
홍석기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 김성태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 임상수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 김민성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 최용순

2010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 분석 윤행호

[경제포커스]

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김신영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 임춘식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
이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
박호정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
호·이춘화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1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
종인

2010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
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
업|정병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청
 비 발전방안|조연숙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
 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
 상영

2010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
 의 발전방향|송재용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
 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
 김목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테섭

2011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변미리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
 |이관수

2011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 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SR센터|조달호·정규진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이관수

2011년 4월호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 김묵한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 김상태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 | 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 | 이종관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상필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할 | 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 방안 | 이갑수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 | 안남우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 | 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 김태홍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 | 진중순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박희석·한진아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 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김선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조호정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 | 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 | 김도훈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 | 성한경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 | 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 신상영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 | 박정현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발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
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홍승아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
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김동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이은애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
양승희

2012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목한·김범
식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석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
곽지원

2012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
나도삼
현시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송기철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
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
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
룡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
곽지원

2012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
|김태곤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강오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
|김동환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 홍미영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 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 |김영생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 |김영미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
|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 |이종욱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 협동조합금융
의 제안 |김자봉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 |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 |서울경제연구
센터

2012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도시 어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 |용호
성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권영돈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 |박희석·양승
희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서울 아파트 평당 (3.3㎡) 전세가격과 증가율 |서
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
황 및 상생협력 강화 |김희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검토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
한진아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서울 자영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
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
석|양승희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
제연구센터

2013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중신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중신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
성화 방안|노희봉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
승돈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형|박덕배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
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고정민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 | 라도삼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
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 김재묵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 서울경제분석센터